국어 문법 이해·적용 학습지

국어의 변화와 문자편

문법10 · 16개 개념 · 이해·적용 80문항

ㆍ ㅡ ㅣ ㅇ ㅿ ㆆ ㅸ

>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훈민정음』 언해본 서문에서

대치동 재우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기호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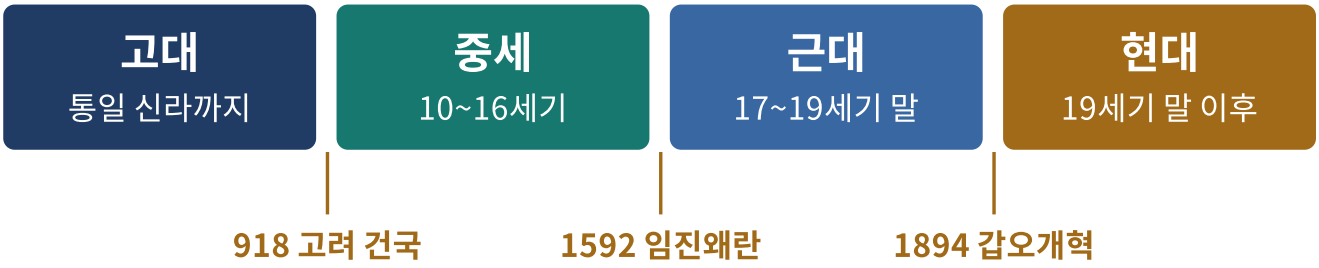
표시	뜻	예
+	체언·조사 또는 어간·어미 등의 결합	나라ㅎ+이
Ø	형태가 겉에 나타나지 않음	불휘+Ø
[ ]	발음·소릿값	[ŋ], [말:]
:	긴소리	말[말:]
→	변화·결합 과정	믈→물
설명 예	원리를 보이기 위해 만든 예	밥+이→바비

‘가상 약속’·‘설명 예’는 실제 옛 문헌의 전사문이 아니다. 실제 원문은 작품 이름과 함께 제시한다.

한눈 지도 — 묶음 목차

묶음	핵심 질문	개념ID	문항
A1	옛말은 모두 같은 시대의 말일까?	문법10-01	001~005
A2	한자의 뜻과 소리를 어떻게 빌렸을까?	문법10-02	006~010
B1	훈민정음은 무엇을 바꾸려고 만들었을까?	문법10-03	011~015
B2	자음 글자는 획만 더하면 모두 설명될까?	문법10-04	016~020
B3	모음 글자는 왜 하늘·땅·사람에서 시작할까?	문법10-05	021~025
B4	글자를 만드는 일과 쓰는 일은 같을까?	문법10-06	026~030
C1	옛 글자가 안 보이면 그 소리도 없어진 걸까?	문법10-07	031~035
C2	조사 모양이 앞말의 모음에 따라 달라질까?	문법10-08	036~040
C3	글자 옆의 점은 글자 수나 길이를 셀까?	문법10-09	041~045
C4	소리가 이어지는 것과 이어 적는 것은 같을까?	문법10-10	046~050
D1	옛 조사도 현대의 이/가·을/를로 고르면 될까?	문법10-11	051~055
D2	나라히와 남기·남군은 잘못 적은 말일까?	문법10-12	056~060
D3	옛 의문형과 높임 표현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문법10-13	061~065
E1	소리가 바뀐 것과 적는 방식이 바뀐 것을 어떻게 가를까?	문법10-14	066~070
E2	옛 형태가 지금 남아 있으면 기능도 같을까?	문법10-15	071~075
E3	옛말의 뜻은 현대어 뜻만 넣으면 될까?	문법10-16	076~080

국어사 한눈 연표 — 경계 사건과 변화의 시기



15세기	1443 문자 창제 / 1446 해례본 반포	B1
15세기 중엽	ㅸ의 소리 변화; ㆆ은 제한된 표기에 사용	C1·E1
16세기	둘째 음절 이하 아래아(ㆍ)→ㅡ; ㅿ 소실 진행	E1
16세기 후반~17세기	방점 쇠퇴·폐기; 주격 가 사용 확대	C3·E2
17~19세기	구개음화·원순 모음화, 첫째 음절 아래아(ㆍ)→ㅏ(18세기)	E1
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아래아(ㆍ)를 기본 자모에서 제외	E1

A1 옛말은 모두 같은 시대의 말일까?

문법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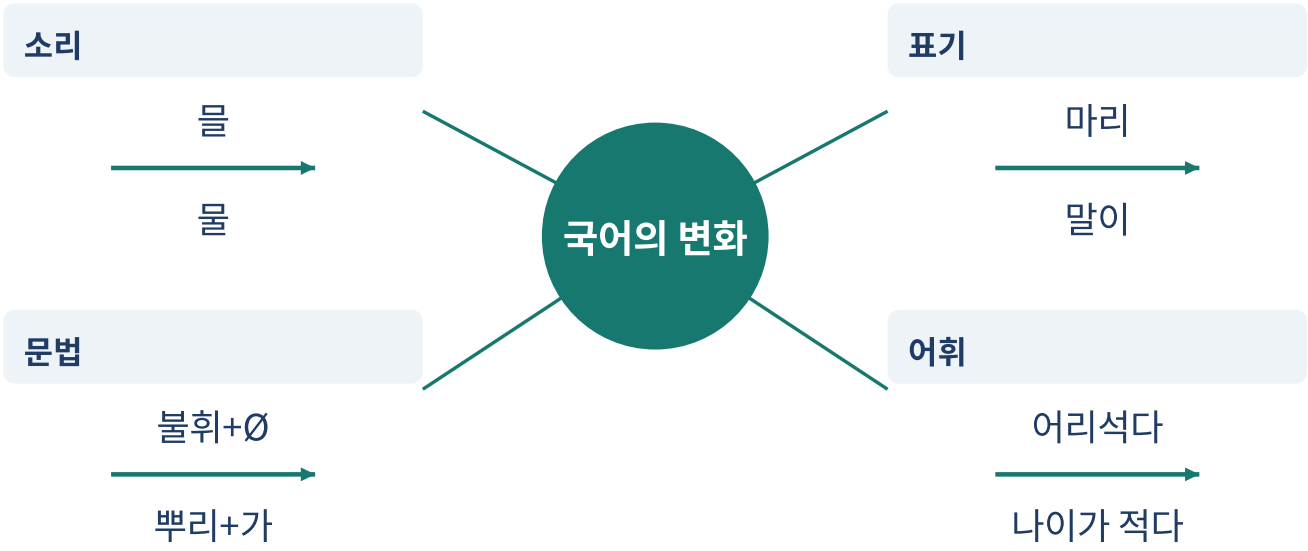
한 줄 답

아니다. 국어사는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누며, 소리·표기·문법·어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정의

국어사는 우리말의 소리·표기·문법·어휘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온 역사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 네 관점으로 나누어 보기



시기	범위와 경계 사건	살필 특징	예
고대	통일 신라까지; 고려 건국(918) 이전	한자를 빌린 기록	『삼국사기』에 전하는 지명 三峴縣 / 密波兮
중세	10세기~16세기 말; 고려 건국~임진왜란 전후	훈민정음 창제 전후로 전기·후기를 나눔	15세기 훈민정음 언해·용비어천가
근대	17세기~19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갑오개혁(1894) 전후	음운·표기·문법 변화가 현대어로 이어짐	믈→물, 주격 조사 가의 사용 확대
현대	갑오개혁(1894) 이후~오늘날	오늘날의 말과 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현재의 국어

변화의 관점	확인할 것	예
소리	발음·음운 체계의 변화	믈→물

변화의 관점	확인할 것	예
표기	소리를 적는 방식의 변화	이어 적기→끊어 적기
문법	조사·어미의 형태와 기능 변화	주격 가 등장
어휘	낱말의 뜻·형태·사용 변화	어리다: 어리석다→나이가 적다

비유로 연결하면

노래가 악보보다 먼저 있듯, 우리말도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악보는 노래를 비교적 자세히 적지만, 옛 문자 기록에는 실제 발음 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 오해	○ 바른 이해
한글 창제는 우리말의 탄생이다.	우리말은 이미 있었고, 한글은 그것을 적는 새 문자이다.
시대 경계에서 모든 말이 하루에 바뀌었다.	경계 사건은 긴 변화를 나누어 살피는 기준이다.

확인·적용 변화-001 ~ 005

001 선택형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을 연구할 자료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훈민정음 해례본의 15세기 제자 원리 설명

② 한자의 뜻·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기록

③ 현대 사전의 발음을 한글 이전의 발음과 같다고 놓은 자료

④ 한자로 적혔으므로 우리말 흔적을 모두 제외한 기록

⑤ 현대 문장을 옛 글자꼴로 바꾸어 쓴 글

002 서답형

"한글을 만들고 나서야 우리말이 생겼다."에서 혼동한 두 대상을 쓰고, 우리말과 한글의 선후 관계를 고치시오.

혼동한 두 대상

바른 선후 관계

003 선택형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를 나누는 대표 경계 사건은?

① 고려 건국 ② 임진왜란 ③ 훈민정음 창제
④ 훈민정음 해례본 반포 ⑤ 갑오개혁

004 서답형

앞의 「무엇이 달라졌나?」 그림에 나온 네 관점으로 분류하시오. (가) 믈→물 (나) 이어 적기→끊어 적기 (다) 주격 조사 가의 등장 (라) 어리다의 뜻 변화. 각각 소리·표기·문법·어휘 중 하나를 쓰시오.

(가)의 관점

(나)의 관점

(다)의 관점

(라)의 관점

005 선택형

옛 문헌의 시대를 먼저 확인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같은 글자·형태라도 시대에 따라 소리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서
② 현대에 같은 형태가 있으면 옛 소리와 기능도 늘 같아서
③ 한글로 적힌 자료에는 시대에 따른 발음 차이가 없어서
④ 같은 시대의 모든 문헌은 표기법이 완전히 같아서
⑤ 현대 조사에 맞지 않는 옛 표현은 모두 오자라서

A2 한자의 뜻과 소리를 어떻게 빌렸을까?

문법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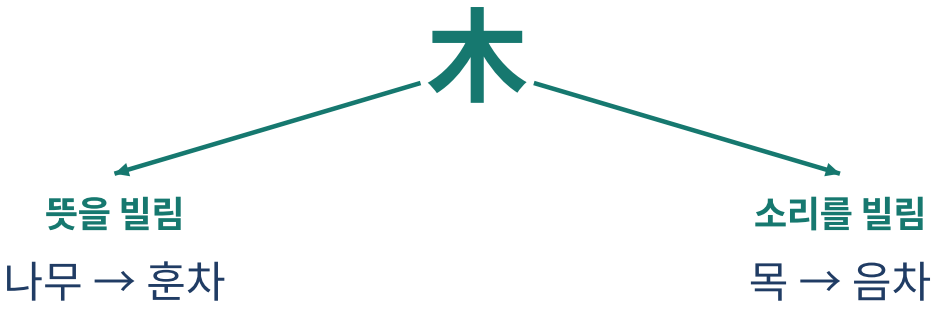
한 줄 답

한자의 뜻을 빌리면 훈차, 소리를 빌리면 음차이다.

정의

차자 표기는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적는 방법이다.

木에서 갈라지는 뜻·소리, 기록 방식의 다섯 갈래



위의 木 예는 빌리는 원리를 보이는 설명 예

고유 명사	서기체	이두	구결	향찰
이름	문장 순서	조사·어미	한문에 토	우리말 문장

기록·읽기 방식	무엇을 적거나 도왔나	예
고유 명사 표기	사람·땅 이름을 적음	三峴縣을 密波兮라고도 했다는 지명 기록
서기체	우리말 어순에 가깝게 한자를 배열	임신서기석의 한자 배열
이두	우리말 어순과 조사·어미 등을 표현	『대명률직해』의 이두문
구결	한문에 토를 붙여 읽기를 도움	『구역인왕경』의 구결
향찰	우리말 문장 전체를 한자로 적음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요」의 향찰 표기

木의 두 쓰임(설명 예): 뜻 '나무'를 살려 읽는 약속은 훈차, 뜻을 버리고 신체 '목'의 소리 기호로 쓰는 약속은 음차이다.

비유로 연결하면

‘4랑해’는 숫자 4의 뜻 대신 ‘사’라는 소리를 빌린 예와 비슷하다. 달 그림으로 ‘달’을 나타내면 뜻을 빌리는 원리와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실제 차자 표기는 한자를 일정한 규칙으로 빌린 문자 생활이므로 임의의 말장난과 같지는 않다.

× 오해	◯ 바른 이해
음차·훈차와 이두·구결·향찰은 같은 층의 분류다.	앞은 빌리는 원리, 뒤는 적거나 읽는 방식이다.
한자로 적힌 기록은 모두 중국말이다.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적은 기록도 있다.

확인·적용 변화-006 ~ 010

006 서답형

〈설명 예〉 水의 뜻은 ‘물’, 음은 ‘수’이다. 뜻은 버리고 ‘경우의 수’의 수 소리만 적는 기호로 빌렸다. 음차·훈차와 빌린 것을 쓰시오.

음차·훈차

빌린 것: 뜻·소리

007 선택형

한문에 우리말 조사·어미의 토를 붙여 읽기를 돕는 방식은?

① 고유 명사 표기 ② 구결 ③ 서기체
④ 이두 ⑤ 향찰

008 서답형

음차·훈차는 (가)이고 이두·구결·향찰은 (나)이다. ‘빌리는 원리’와 ‘적는 방식’을 넣고, 두 이름 무리를 같은 종류로 나열하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가)

(나)

분류가 다른 까닭

---

009 선택형

향찰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① 한자의 소리만 빌리고 뜻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② 우리말 어순 대신 한문 어순만 그대로 사용했다.

③ 한문 옆에 조사·어미의 토만 덧붙였다.

④ 한자의 뜻과 소리를 활용하여 우리말 문장을 적었다.

⑤ 사람 이름만 적고 문장의 조사·어미는 표현하지 않았다.

---

010 서답형

〈설명 예·가상 지명〉 石의 뜻은 ‘돌’, 음은 ‘석’이다. ‘돌석’이라는 이름을 石石으로 적는다고 약속하였다. 첫 石은 뜻 ‘돌’을 살리고, 둘째 石은 뜻을 버리고 소리 ‘석’만 빌렸다. 각각 음차·훈차를 쓰고 무엇을 빌렸는지 쓰시오.

첫 石: 원리·빌린 것

둘째 石: 원리·빌린 것

B1 훈민정음은 무엇을 바꾸려고 만들었을까?

문법10-03

한 줄 답

우리말에 맞는 쉬운 글자를 만들어 백성이 자기 뜻을 적고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게 하려고 만들었다.

정의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는 우리말의 특징에 맞는 새 글자를 마련하여 백성이 쉽게 배워 편리하게 쓰게 하려는 뜻이다.

자기 뜻을 적기 어려움 → 쉬운 글자로 일상에서 표현



애민: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을 배려



실용: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사용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 자주　새로 스믈여듧 字 → 창조

정신	서문에서 연결되는 대목	핵심 사실	예
자주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문자 필요	중국말과 다른 우리말
애민	어린 百姓 / 어엿비 너겨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여김	어엿비=가엾게
창조	새로 스믈여듧 字ᄅᆞᆯ 밍ᄀᆞ노니	새로운 글자 마련	새로 만든 28자
실용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쉽게 익혀 날마다 편하게 사용	수ᄫᅵ=쉽게

언해는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해 옮기는 일이다. **해례본(1446)**에는 글자의 원리·쓰임·용례 설명이 있다. **언해본**은 그 앞부분인 어제 서문과 예의 등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현전하는 대표 자료는 『월인석보』 권두본(1459)이다. 아래는 방점·협주·한자음 표기를 생략하고 학습을 위해 띄어쓰기를 조정한 본문이다. 현대어 풀이는 직접 썼다.

서문 본문	현대어 풀이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ᄂᆞᆫ 노미 하니라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ᄅᆞᆯ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믈여듧 字ᄅᆞᆯ 밍ᄀᆞ노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사ᄅᆞᆷ마다 ᄒᆡ혀 수ᄫᅵ 니겨 날로 ᄡ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ᅮᄅᆞ미니라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비유로 연결하면

우리말을 중국말에 맞춘 옷에 넣으려면 조사·어미 같은 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 새 문자는 우리말에 맞는 옷을 마련한 일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한자가 열등한 문자라는 뜻이 아니라, 언어 구조와 기록 수단의 적합성을 비교한 것이다.

× 오해	◯ 바른 이해
1443년과 1446년은 같은 사건이다.	1443년은 문자 창제, 1446년은 해례본 반포이다.
해례본과 언해본은 같은 언어로 썼다.	해례본은 한문, 언해본은 앞부분의 어제 서문·예의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확인·적용 변화-011 ~ 015

011 선택형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ᄉᆞ뭇디 아니ᄒᆞᆯᄊᆡ”에서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점에 가장 직접 연결되는 정신은?

① 자주 ② 애민

③ 창조 ④ 실용

⑤ 계승: 한자 표기를 그대로 쓰려는 뜻

012 서답형

1443년과 1446년에 해당하는 일을 문자 창제와 책 반포로 구별해 쓰시오.

1443년의 일

1446년의 일

013 선택형

“사ᄅᆞᆷ마다 ᄒᆡ여 수ᄇᆡ 니겨 날로 ᄲᅮ메 便安킈 ᄒᆞ고져”를 풀이하고 정신을 연결한 것은?

① 사람마다 어려운 한자음을 외우게 함 — 자주

② 말과 문자를 새로 함께 만듦 — 창조

③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려 함 — 실용

④ 백성의 나이가 어리다고 여김 — 애민

⑤ 모든 사람이 이미 글을 읽었다고 보고함 — 실용

014 서답형

“어린 百姓이 … 내 이ᄅᆞᆯ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에서 애민 정신과 연결되는 ‘어린’과 ‘어엿비’를 찾아 각각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어린의 옛뜻

어엿비의 옛뜻

015 선택형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바르게 구별한 것은?

① 해례본은 한문으로 원리·용례를 설명하고, 언해본은 어제 서문·예의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② 해례본은 우리말 번역문이고 언해본은 중국의 원문이다.

③ 해례본과 언해본은 둘 다 글자 모양만 나열했다.

④ 언해본은 해례본의 해례 전체를 빠짐없이 우리말로 옮겼다.

⑤ 언해본은 현대 한글 맞춤법으로 고친 20세기 책이다.

B2 자음 글자는 획만 더하면 모두 설명될까?

문법10-04

한 줄 답

아니다. 기본자 5자는 발음 기관을 본떴고,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했으며, ㆁ·ㄹ·ㅿ은 이체자이다.

정의

초성자 제자 원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을 바탕으로 가획자와 이체자를 만든 원리이다.

기본자	당시 소리 이름	본뜬 모습	가획의 예
ㄱ	어금닛소리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ㄱ→ㅋ
ㄴ	혓소리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ㄴ→ㄷ→ㅌ
ㅁ	입술소리	입의 모양	ㅁ→ㅂ→ㅍ
ㅅ	잇소리	이의 모양	ㅅ→ㅈ→ㅊ
ㅇ	목구멍소리	목구멍의 모양	ㅇ→ㆆ→ㅎ

기본자 5자 + 가획자 9자 + 이체자 3자 = **초성자 17자**이다. 그림의 ①~⑤는 본뜬 발음 기관의 위치이며 변화-020에서 사용한다.

비유로 연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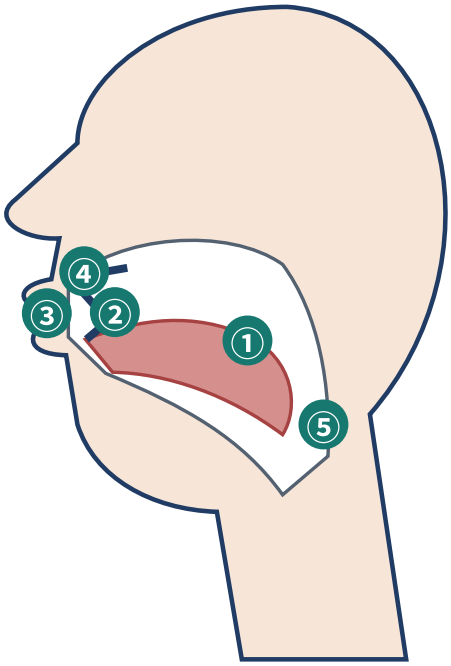
같은 집안 형제에게 공통 표시를 두듯, 같은 발음 기관과 관련된 글자를 기본자에서 늘렸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ㆁ·ㄹ·ㅿ은 이체자이므로 모든 글자를 획 더하기만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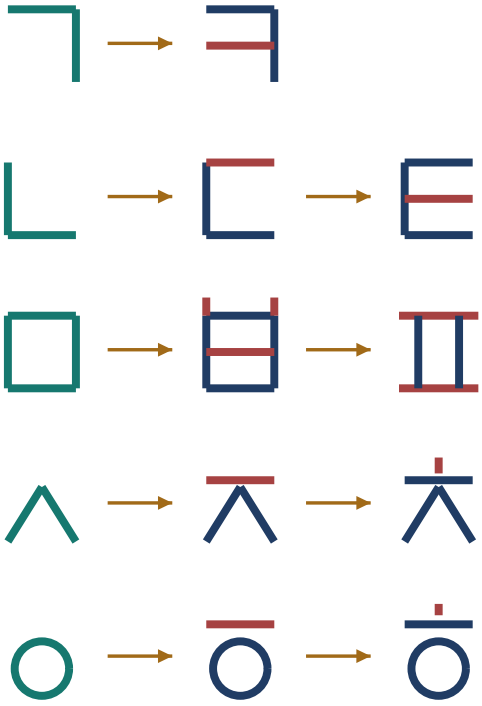
× 오해	◯ 바른 이해
가획은 예사소리에서 거센소리 글자만 만드는 것이다.	소리가 세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했다. ㄴ→ㄷ도 가획이다.
획이 더 있어 보이면 모두 가획자이다.	ㆁ·ㄹ·ㅿ은 이체자로 따로 분류한다.

발음 기관을 본뜬 기본자와 소리의 세기에 따른 가획



① 혀뿌리·목구멍 → ㄱ
② 혀끝·윗잇몸 → ㄴ
③ 입 → ㅁ ④ 이 → ㅅ
⑤ 목구멍 → ㅇ

기관의 위치를 보이는 단면 그림



소리가 세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함

이체자: ㆁ, ㄹ, ㅿ

① 혀뿌리 목구멍 막음



② 혀끝 윗잇몸 접촉



③ 입 모양



④ 이 모양



⑤ 목구멍



회색: 기관의 윤곽 / 청록색: 그 모양을 본뜬 기본자

확인·적용 변화-016 ~ 020

016 서답형

ㄴ을 만드는 단계와 ㄴ에서 ㄷ·ㅌ을 만드는 단계에 적용한 제자 원리를 각각 쓰시오.

ㄴ의 제자 원리

ㄴ→ㄷ→ㅌ의 제자 원리

017 선택형

창제 당시 초성자 17자의 구성이 바른 것은?

① 기본자 3자 + 초출자 4자 + 재출자 4자

② 기본자 5자 + 가획자 12자

③ 기본자 14자 + 모음자 3자

④ 기본자 5자 + 각자 병서자 5자 + 모음자 7자

⑤ 기본자 5자 + 가획자 9자 + 이체자 3자

018 서답형

"가획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방법이다."라는 설명이 너무 좁은 까닭을 ㄴ→ㄷ을 이용해 쓰시오. 획을 더한 이유도 넣으시오.

가획의 원리

ㄴ→ㄷ이 반례인 까닭

019 선택형

ㆁ·ㄹ·ㅿ의 제자 분류는?

① 이체자 ② 상형 기본자 ③ 가획자 ④ 각자 병서자 ⑤ 중성 재출자

020 서답형

앞의 발음 기관 단면도에 붙은 번호를 보시오. ① 혀뿌리·목구멍을 막는 자리, ② 혀끝·윗잇몸, ③ 입, ④ 이, ⑤ 목구멍의 모양에 각각 대응하는 초성 기본자를 쓰시오.

①

②

③

④

⑤

B3 모음 글자는 왜 하늘·땅·사람에서 시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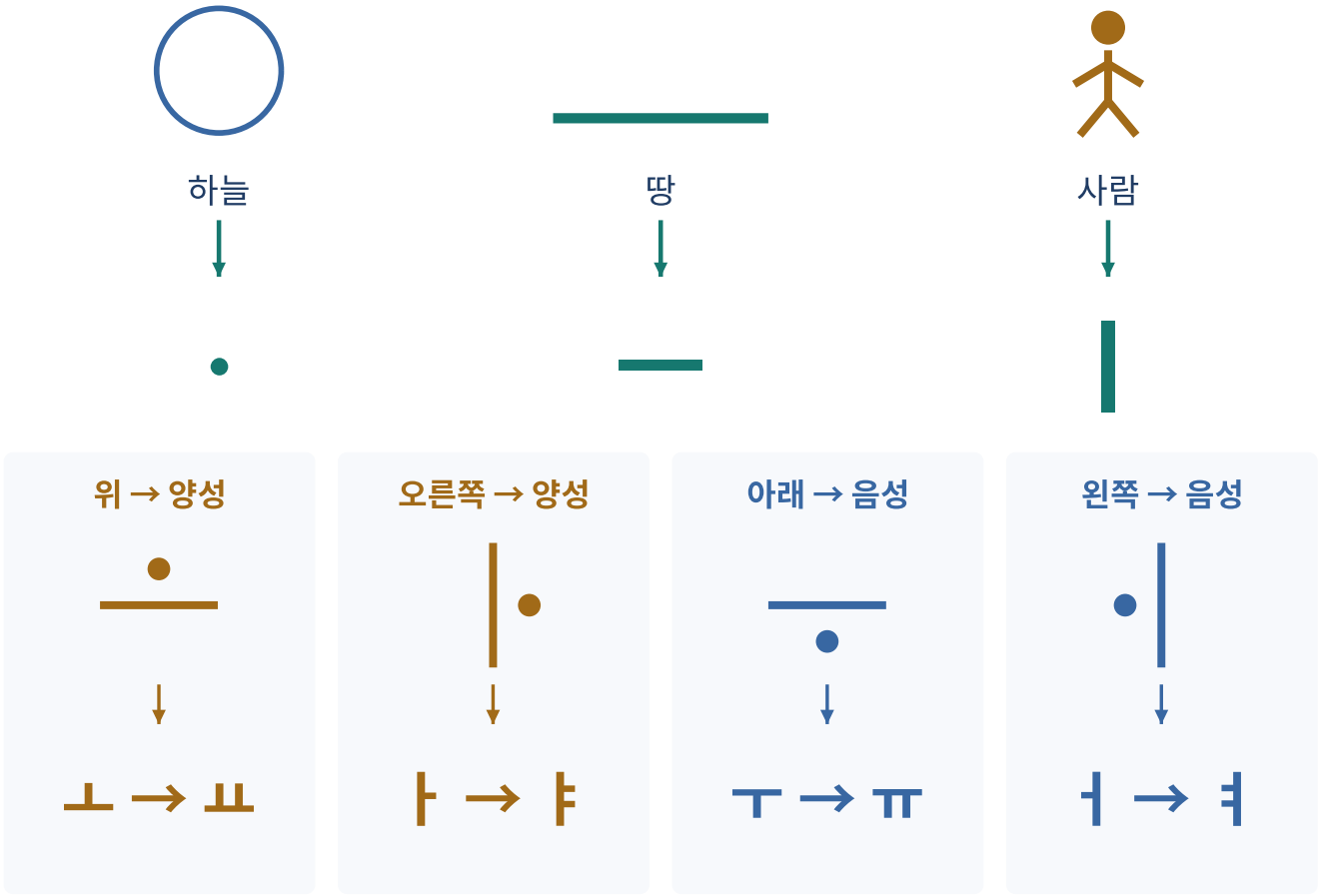
한 줄 답

하늘·땅·사람을 본떠 기본자 3자를 만들고, 이를 합쳐 8자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의

중성자 제자 원리는 하늘·땅·사람을 본뜬 상형과 기본자들을 어울리는 합성으로 모음 글자를 만든 원리이다.

하늘·땅·사람 → 기본자 → 점을 놓아 모음 조립



같은 색은 같은 모음 계열: 황금색 양성 / 파란색 음성

단계	구성 원리	예
기본자 3자	하늘·땅·사람 상형	·, ㅡ, ㅣ
초출자 4자	기본자를 한 차례 합성	ㅗ, ㅏ, ㅜ, ㅓ

단계	구성 원리	예
재출자 4자	초출자에 다시 점을 더함	ㅛ, ㅑ, ㅠ, ㅕ
양성 모음 계열	점을 위·오른쪽에 놓음	ㅗ, ㅏ와 ㅛ, ㅑ
음성 모음 계열	점을 아래·왼쪽에 놓음	ㅜ, ㅓ와 ㅠ, ㅕ

창제 당시 28자(초성 17+중성 11) − 쓰이지 않게 된 4자(ㆆ, ㅇ, ㅿ, ㆍ) = 현대 기본 자모 24자(자음 14+모음 10). ㅱ은 연서로 만든 글자이며 28 기본자에 들어 있던 글자를 뺀 사례가 아니다.

비유로 연결하면

기본 블록 3개로 여러 모양을 조립하듯, 기본자 3개를 어울려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조립한 요소 수가 발음의 음절 수와 같지는 않다. ㅛ는 두 음절이 아니다.

× 오해	◯ 바른 이해
28자와 24자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이다.	둘 다 기본 글자 수이다. 쓰이지 않게 된 ㆆ, ㅇ, ㅿ, ㆍ를 빼면 24자가 남는다.
현대 기본 자모 24자는 현대 음운 수와 같다.	기본 자모의 수와 음운의 수는 세는 대상이 다르다.

확인·적용 변화-021 ~ 025

021 선택형

중성 기본자와 상형 대상의 연결이 바른 것은?

① ㆍ: 사람, ㅡ: 하늘, ㅣ: 땅
② ㆍ: 하늘, ㅡ: 땅, ㅣ: 사람
③ ㆍ: 하늘, ㅡ: 입, ㅣ: 혀
④ ㆍ: 땅, ㅡ: 사람, ㅣ: 하늘
⑤ ㆍ: 목구멍, ㅡ: 이, ㅣ: 혀뿌리

022 서답형

ㅗ와 ㅓ를 만들 때 점 ㆍ를 기본자 ㅡ·ㅣ의 어느 쪽에 두는지 쓰시오.

ㅗ: 기준 글자·점 위치

ㅓ: 기준 글자·점 위치

023 선택형

ㅛ·ㅑ·ㅠ·ㅕ를 재출자라고 부르는 까닭은?

① 같은 초출자 소리를 두 음절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② 현대의 두 자음을 모아 만든 글자이기 때문이다.

③ 하늘·땅·사람의 모양을 처음 본뜬 기본자이기 때문이다.

④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썼기 때문이다.

⑤ 초출자에 다시 점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기 때문이다.

---

024 서답형

창제 당시 28자 가운데 오늘날 기본 자모로 쓰지 않는 네 글자를 쓰고, 현대 기본 자모가 24자인 까닭을 쓰시오.

쓰이지 않게 된 네 글자

28자→24자의 까닭

---

025 선택형

점을 ㅡ 위에 놓은 ㅗ와 ㅣ 오른쪽에 놓은 ㅏ는 어느 계열인가?

① 음성 모음 계열

② 중성 모음 ㅣ만의 계열

③ 양성 모음 계열

④ 연서로 만든 순경음 계열

⑤ 각자 병서로 만든 된소리 계열

B4 글자를 만드는 일과 쓰는 일은 같을까?

문법10-06

한 줄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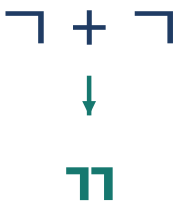
아니다. 제자는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운용은 만든 글자를 배치하여 적는 방법이다.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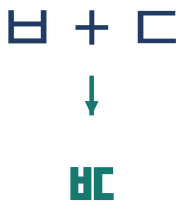
글자의 운용은 만든 자모를 초성·중성·종성 자리와 음절 단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배치가 보여 주는 글자 운용

같은 글자를 가로로: 각자 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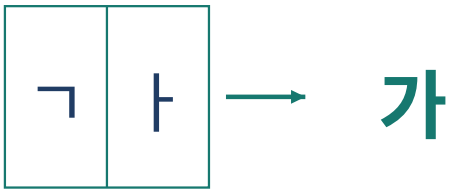
다른 글자를 가로로: 합용 병서



ㅂ 아래 ㅇ: 연서



음절 칸 안에: 모아쓰기



방법	글자를 쓰는 방식	예
종성부용초성	초성자를 종성에서도 다시 사용	가의 ㄱ을 각의 받침에도 사용
각자 병서	같은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씀	ㄲ, ㄸ, ㅃ, ㅆ, ㅉ, ㆅ
합용 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씀	ㅢ, ㅮ, ㅶ
연서	순음 아래에 ㅇ을 이어 씀	ㅂ 아래 ㅇ→ㅱ
모아쓰기(부서법·성음법)	중성을 초성의 옆·아래에 놓고 음절을 이룸	ㄱ+ㅏ→가, ㄱ+ㅗ→고

비유로 연결하면

같은 배우가 첫 장면과 끝 장면에서 두 역할을 맡듯, 초성 글자를 종성 자리에서도 쓴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같은 글자도 초성·종성의 환경에 따라 실제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 오해	○ 바른 이해
ㄱ과 ㄱ을 나란히 쓰는 것은 가획이다.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므로 각자 병서이다.
종성부용초성은 종성에서 8자만 쓰라는 뜻이다.	초성 글자 재사용 원리이며, 8종성법은 쓰는 글자의 범위를 다룬다.

확인·적용 변화-026 ~ 030

026 서답형

같은 ㄱ을 가로로 나란히 쓴 ㄲ과, ㅂ 아래에 ㅇ을 이어 쓴 ㅸ의 운용 방법을 각각 쓰시오.

ㄲ의 방법

ㅸ의 방법

027 선택형

합용 병서의 예는?

① ㄲ ② ㅆ ③ ㅸ ④ 가 ⑤ ㅶ

028 서답형

종성부용초성을 '가'와 '각'의 ㄱ을 이용해 설명하시오.

두 자리

재사용하는 글자

029 선택형

모아쓰기의 예와 설명이 바른 것은?

①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듦

② ㅂ 아래에 ㅇ을 붙여 ㅸ을 만듦

③ ㄱ을 둘 나란히 써 ㄲ을 만듦

④ ㄱ과 ㅗ를 위아래에 배치하여 고라는 한 음절을 적음

⑤ ㅂ과 ㄷ을 나란히 써 ㅶ을 만듦

---

030 서답형

각자 병서·합용 병서·연서를 '같은/다른 글자'와 '가로/위아래'로 구별하고 예를 하나씩 쓰시오.

각자 병서: 배치·예

합용 병서: 배치·예

연서: 배치·예

C1 옛 글자가 안 보이면 그 소리도 없어진 걸까?

문법10-07

한 줄 답

아니다. ㆁ의 글자꼴은 ㅇ으로 합쳐졌지만 그 소리 [ŋ]은 현대 받침 ㅇ에 남아 있다.

정의

중세 국어의 음운 체계는 옛 문헌에 나타난 자음·모음·어두 자음군·성조 등의 소리 체계이다.

15세기 소리 지도 — 글자와 소릿값을 함께 보기

ㆍ	→ 아래아: 단모음	현대 표준어에 같은 단모음 없음
ㅿ	→ [z] 추정	목청을 울리는 마찰음
ㆁ	→ [ŋ]	현대 받침 ㅇ의 소리
ㅱ	→ 한자음·특수 표기	독립 음운으로 단순 대입하지 않음
ㅸ	→ [β] 추정	두 입술 사이 마찰음

ㅐ: ㅏ + 반모음 ㅣ[j] ㅖ: ㅓ + 반모음 ㅣ[j]

반모음은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함

15세기 글자·현상	소리 또는 사용	예
ㆍ(아래아)	현대 표준어에는 없는 단모음	ᄀᆞᄅᆞ치다
ㅿ(반치음)	목청을 울리는 마찰음 [z]로 추정	ᄆᆞᅀᆞᆷ
ㆁ(옛이응)	받침 ㅇ과 같은 [ŋ]	中의 옛 한자음 듕(C4 동국정운식 한자음 참조)

15세기 글자·현상	소리 또는 사용	예
ㆆ(여린히읗)	주로 한자음·된소리 표시·관형사형 어미 뒤에 사용	니르고져 홇 배
ㅱ(순경음 비읍)	두 입술 사이의 마찰음 [β]로 추정	수ᄫᅵ, 더ᄫᅥ
이중 모음	ㅐ·ㅖ는 각각 ㅏ·ㅓ 뒤에 반모음 ㅣ[j]가 이어짐	ㅐ: ㅏ+ㅣ[j], ㅖ: ㅓ+ㅣ[j]
어두 자음군	단어 첫머리 두 자음을 모두 발음	ㅂ계 합용 병서의 ᄲᅳᆯ, ᄠᅳᆮ

반모음 ㅣ[j]는 ㅣ를 짧게 미끄러지듯 내는 소리로,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15세기의 대표 단모음은 **ㆍ, ㅡ, ㅣ, ㅗ, ㅏ, ㅜ, ㅓ**이다.

ㅂ계 어두 자음군의 흔적으로 **좁쌀·볍씨·입때·접때**를 살핀다. ㅅ계 합용 병서는 된소리를 적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글자와 소리의 이후 변화는 E1에 모았다.

비유로 연결하면

가게 간판을 바꾸어도 직원은 남을 수 있듯, 글자꼴이 바뀌어도 그 소리는 남을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 나 ㅿ처럼 현대 표준어에서 별개의 소리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오해	◯ 바른 이해
ㅿ은 현대의 ㅅ과 같은 소리다.	ㅿ은 유성 마찰음 [z]로 추정하며 ㅅ과 구별한 글자이다.
ㅂ계 합용 병서는 지금의 된소리와 언제나 같은 발음이었다.	학교 문법에서는 어두 자음군으로 보며 좁쌀·볍씨의 ㅂ과 연결한다.

확인·적용 변화-031 ~ 035

031 선택형

ㆁ의 이후 변화로 알맞은 것은?

① 글자와 함께 [ŋ] 소리도 현대 국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② 글자꼴은 ㅇ에 합쳐졌지만 [ŋ] 소리는 받침 ㅇ에 남았다.

③ 현대 초성 ㅇ은 모두 옛 ㆁ과 같이 [ŋ]으로 난다.

④ ㆁ은 모음이었으므로 ㅇ에 합쳐져 모음 수가 줄었다.

⑤ ㆁ이 사라진 뒤 모든 받침의 발음이 없어졌다.

032 서답형

옛말 쌀은 ㅂ계 합용 병서를 써서 ᄡᆞᆯ로 적었다. 조+쌀→좁쌀에서 ㅂ이 나타나는 까닭을 옛 어두 자음군과 연결해 쓰시오.

옛 ᄡᆞ의 구성

좁쌀에 남은 소리

033 선택형

15세기 ㅐ와 현대 단모음 ㅐ를 비교한 것은?

① 옛 ㅐ는 ㅏ와 ㅣ를 두 음절로 읽는 표기였다.

② 옛 ㅐ와 현대 ㅐ는 모두 자음 두 개였다.

③ 옛 ㅐ는 반모음 없이 ㅏ만 나타냈다.

④ 옛 ㅐ는 ㅸ과 ㅇ을 연서한 글자였다.

⑤ 옛 ㅐ는 ㅏ 뒤에 반모음 ㅣ[j]가 이어진 이중 모음이었다.

034 서답형

C1의 표와 설명에서 ㆍ, ㅿ, ㆁ을 비교하시오. (가) 글자꼴은 기본 자모에서 사라졌지만 같은 소리가 받침에 남은 글자, (나) 현대 표준어에서 별개 소리로 남지 않은 두 글자를 쓰시오.

(가)의 글자

(나)의 두 글자

035 선택형

더ᄫᅥ→더워와 수ᄇᆡ→수이를 함께 설명한 것은?

① 앞 예에서는 ㅸ이 반모음 ㅗ/ㅜ[w]로 바뀌었고, 뒤 예에서는 ㅣ 앞의 ㅸ이 탈락했다.

② 두 예에서 ㅸ은 모두 현대 자음 ㅂ으로 바뀌었다.

③ 두 예에서 ㅸ은 모두 받침 ㅇ으로 바뀌었다.

④ 앞 예는 모음이 사라지고 뒤 예는 자음이 새로 생겼다.

⑤ 뒤 예도 반드시 w 소리를 넣어 읽어야 한다.

C2 조사 모양이 앞말의 모음에 따라 달라질까? 문법10-08

한 줄 답

그렇다. 중세에는 앞말의 양성·음성 모음에 맞추어 조사 형태가 달라지는 모음 조화가 뚜렷했다.

정의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경향이다.

두 기준을 동시에 본다 — 목적격 조사 2×2

	양성 아래아(·), ㅏ, ㅗ	음성 ㅡ, ㅣ, ㅜ
자음 끝	**올** 몰+올 → 모ᄅᆞᆯ	**을** 믈+을 → 므를
모음 끝	**롤** 나+롤 → 나롤	**를** 너+를 → 너를

위 낱말 결합은 대표 형태 선택을 보이는 설명 예

앞말의 끝소리	양성 모음: ·, ㅏ, ㅗ	음성 모음: ㅡ, ㅣ, ㅜ	예
자음 끝	올	을	몰+올→모ᄅᆞᆯ / 믈+을→므를
모음 끝	롤	를	나+롤→나롤 / 너+를→너를

ㅣ는 중성 모음이라 양성·음성 어느 쪽과도 어울린다.

앞의 2×2 목적격 표는 **자음 끝/모음 끝과 양성/음성의 대표 결합**을 보여 준다. 표의 낱말 결합은 형태 선택을 보이는 설명 예이다.

비유로 연결하면

양성 팀은 양성 유니폼, 음성 팀은 음성 유니폼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ㅣ는 한 팀으로만 묶이지 않는 중립 선수와 같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실제 모음 조화에는 어휘·형태에 따른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결합의 절대 규칙은 아니다.

× 오해	◯ 바른 이해
목적격 조사는 받침만 보고 고른다.	끝소리와 모음 부류를 함께 본다.
현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전혀 없다.	막아/먹어, 졸졸/줄줄, 알록달록/얼룩덜룩 등에 흔적이 남아 있다.

확인·적용 변화-036 ~ 040

036 서답형

중세 모음 ㆍ, ㅡ, ㅣ, ㅗ, ㅏ, ㅜ, ㅓ를 양성·음성·중성으로 나누시오.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중성 모음

037 선택형

〈목적격 조사 결합 설명 예〉 ᄇᆞ롬(바람)은 자음 끝·양성, 벋(벗)은 자음 끝·음성이다. 두 말 뒤에 붙는 조사를 순서대로 고른 것은?

① 을 / 올 ② 올 / 을 ③ 롤 / 를
④ 를 / 롤 ⑤ 올 / 올

038 서답형

쇼(소)는 모음 끝·양성, 부텨(부처)는 모음 끝·음성이다. 각 체언에 목적격 조사를 붙여 적고, 서로 다른 조사를 고른 조건을 쓰시오.

쇼+조사

부텨+조사

달라지는 조건

---

039 선택형

모음 조화의 현대 흔적으로 알맞은 짝은?

① 밭이 / 바치 ② 국물 / 궁물 ③ 막아 / 먹어
④ 꽃 / 꼬치 ⑤ 좋다 / 조타

---

040 서답형

현대의 졸졸/줄줄에서 달라진 모음을 쓰고, 모음 조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쓰시오.

달라진 모음

양성·음성의 관계

C3 글자 옆의 점은 글자 수나 길이를 셀까?

문법10-09

한 줄 답

아니다. 방점은 음절의 높낮이인 성조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정의

성조는 음의 높낮이로 뜻을 구별하는 요소이며, 방점은 그 높낮이를 글자 왼쪽의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방점은 높낮이, ː는 긴소리



설명 글자 '가'로 높낮이만 비교

방점 쇠퇴(16세기 후반) → 폐기 일반화(17세기)

옛 상성 계열의 상당수 → 현대 긴소리 [말ː] 등

방점	성조	높낮이	예
없음	평성	낮음	설명 글자 가: 점 없음
한 점	거성	높음	설명 글자 가: 왼쪽에 한 점
두 점	상성	낮다가 높아짐	설명 글자 가: 왼쪽에 두 점
방점의 이후	16세기 후반부터 쇠퇴, 17세기 폐기 일반화	중앙어의 성조 구별 소실과 연결	옛 상성 계열이 현대 긴소리로 이어진 경우가 많음

비유로 연결하면

노래방 음정 막대처럼 낮음·높음·낮다가 높아짐의 방향을 보여 준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도·레·미 같은 절대 음 높이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높낮이를 나타낸다.

× 오해	◯ 바른 이해
방점 두 개는 두 음절이라는 뜻이다.	한 음절의 상성을 나타낸다.
방점과 현대 :는 뜻과 놓는 자리가 같다.	방점은 글자 왼쪽의 높낮이 표시, :는 발음 표기의 긴소리 표시이다.

확인·적용 변화-041 ~ 045

041 선택형

글자 왼쪽에 방점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높낮이인가?

① 낮게 유지함
② 높게 유지함
③ 낮았다가 높아짐
④ 반드시 두 음절로 나누어 읽음
⑤ 현대 발음 기호 :와 같이 길이만 표시함

042 서답형

방점 없음·한 점·두 점의 이름과 높낮이를 각각 쓰시오.

없음: 이름·높낮이 _____

한 점: 이름·높낮이 _____

두 점: 이름·높낮이 _____

043 선택형

어떤 표시는 글자 왼쪽의 점이고, 다른 표시는 발음 [말:] 안에 있다. 두 표시를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① 점 모양이 있으므로 모두 긴소리를 표시하는가

② 무엇을 표시하며 글자·발음 표기의 어디에 놓이는가

③ 글자 옆의 점이 몇 개이므로 자음 수가 몇 개인가

④ 점이 같은 낱말에 붙으면 옛뜻과 현대 뜻도 같은가

⑤ 점이 많을수록 더 큰 목소리로 읽는가

---

044 서답형

방점과 현대 긴소리 기호 :가 각각 무엇을 표시하고 어디에 놓이는지 쓰시오.

방점: 표시 내용·위치

: 표시 내용·위치

---

045 선택형

방점과 성조의 이후 변화로 알맞은 것은?

① 옛 상성의 두 점과 현대 :는 표시 기능이 완전히 같다.

② 방점 표기는 16세기 후반부터 쇠퇴했고, 옛 상성 계열은 현대 긴소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③ 방점은 사라졌지만 모든 낱말의 높낮이가 현대 표준어에 그대로 남았다.

④ 옛 상성은 모두 현대 짧은소리로만 이어졌다.

⑤ 방점은 15세기 문자 창제 직후 모두 폐기되었다.

C4 소리가 이어지는 것과 이어 적는 것은 같을까?

문법10-10

한 줄 답

아니다. 연음은 소리의 현상이고 이어 적기는 앞말의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에 적는 표기 방식이다.

정의

중세 국어의 표기 특징은 이어 적기·8종성법·방점 등 당시의 글자 사용과 적는 방식이다.

받침을 적는 자리와 받침 표기의 흐름



중세 8종성	근대 7종성	현대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 ㄷ 대신 ㅅ ㄱ, ㄴ, ㄹ, ㅁ, ㅂ, ㅅ, ㅇ	→ 형태를 밝혀 적음 꽃, 밭, 밖, 값 등

위 밥+이의 이어 적기는 표기 위치를 보이는 설명 예

15세기 표기 특징	뜻	실제 원문 또는 설명 예
이어 적기(연철)	앞말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에 적음	말씀+이→말ᄊᆞ미, 뜯+을→ᄠᅳ들
8종성법	종성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사용	나랏의 받침 ㅅ; 곶의 ㅈ은 예외 표기
방점	글자 왼쪽에 성조 표시	원문 영인본의 점; 이 학습지의 전사에서는 생략
띄어쓰기 없음	현대와 같은 단어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음	이 학습지의 원문 띄어쓰기는 분석을 위한 조정

15세기 표기 특징	뜻	실제 원문 또는 설명 예
동국정운식 한자음	중국 한자음 체계를 참고해 인위적으로 정한 이상적 한자음	中듕國귁처럼 한자에 붙인 음 표기
한자 병기	문장 속에 한자도 함께 사용	中國, 文字, 百姓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고쳐 정한 이상적인 한자음이다. 실제 우리 한자음과 달랐으며 오래 정착하지 못했다. 받침 표기는 **중세 8종성법 → 근대 7종성 표기(ㄷ 대신 ㅅ) → 현대 형태에 맞는 받침 표기**로 이어졌다.

비유로 연결하면

들리는 소리를 이어 받아 적는 것과 낱말 카드를 원래 모양대로 붙이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이어 적기는 그 시대의 표기 원칙이므로 현대 맞춤법의 오답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 오해	◯ 바른 이해
마리와 말이는 적힌 모양이 달라 반드시 발음도 다르다.	같은 [마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을 수 있다.
종성부용초성·8종성법·현대 일곱 받침은 모두 같은 수를 센다.	각각 글자 재사용 원리·종성 글자의 범위·받침 소리의 수를 다룬다.

확인·적용 변화-046 ~ 050

046 서답형

〈표기 설명 예〉 말+이를 마리로 이어 적었다. 뒤 음절 첫소리로 적은 받침을 쓰고, 이어 적기와 연음이 각각 소리·표기 중 무엇인지 쓰시오.

뒤 첫소리로 옮겨 적은 자음

이어 적기의 관점

연음의 관점

047 선택형

15세기 8종성법의 글자만 모은 것은?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ㅇ
③ ㄱ, ㄴ, ㄹ, ㅁ, ㅂ, ㅅ, ㅇ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ㅈ, ㆁ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ㅎ, ㆆ

---

048 서답형

두 질문에 각각 답하시오. (가) 종성부용초성: 종성 글자를 따로 새로 만들었는가? (나) 8종성법: 어떤 여덟 글자를 종성에 주로 썼는가?

(가)의 답

(나)의 여덟 글자

---

049 선택형

서문에서 이어 적기를 보이는 어절은? 앞말의 받침이 조사 이 앞에서 뒤 음절 첫소리로 적힌 것을 고르시오.

① 나랏 ② 새로 ③ 어엿비 ④ 날로 ⑤ 말ᄊᆞ미

---

050 서답형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쓰던 한자음과 그대로 같게 볼 수 없는 까닭을 쓰시오.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성격

실제 한자음과 다른 까닭

D1 옛 조사도 현대의 이/가·을/를로 고르면 될까?

문법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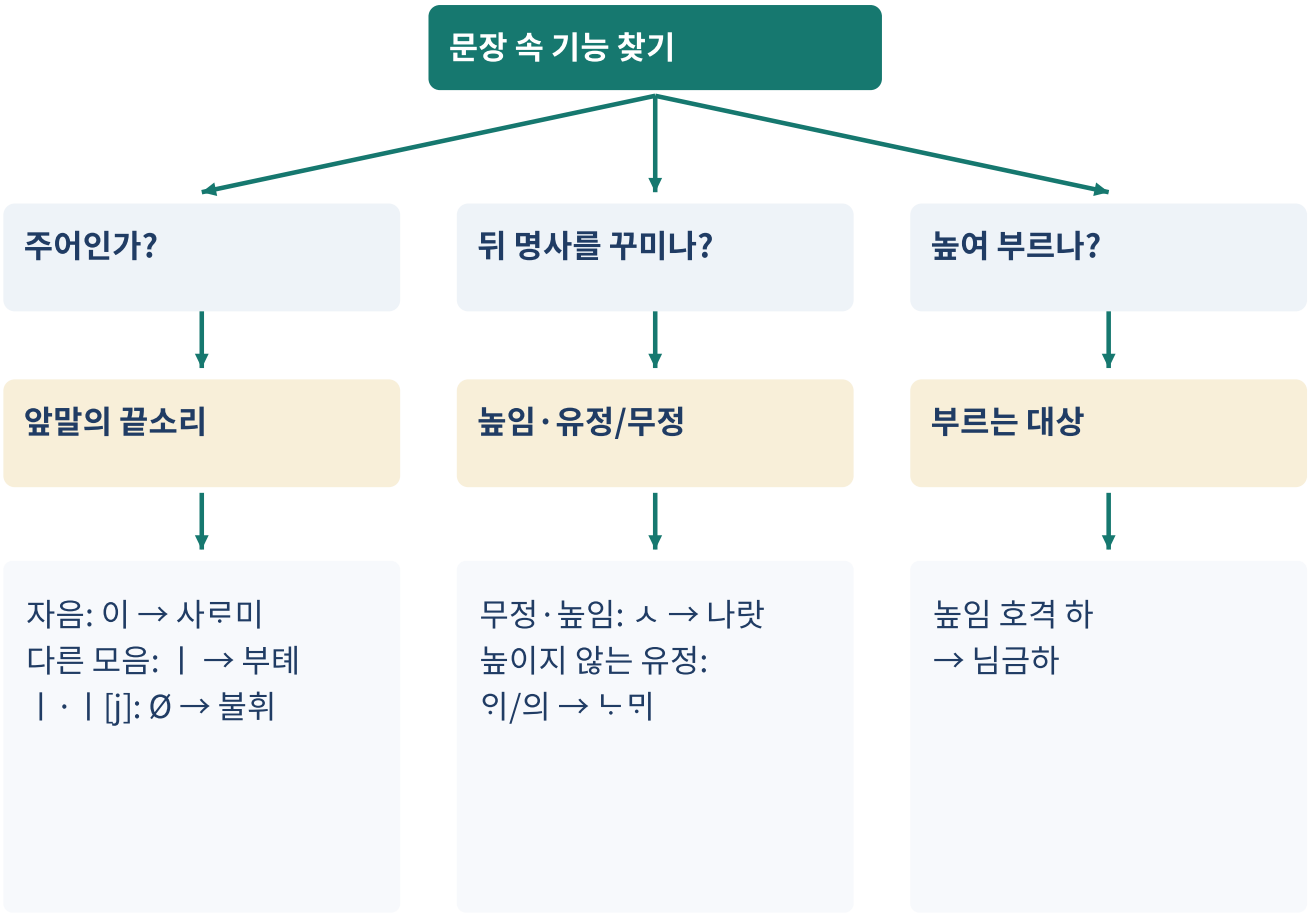
한 줄 답

아니다. 조사의 기능을 찾은 뒤 앞말의 끝소리·모음, 높임 여부에 따라 당시의 형태를 고른다.

정의

조사는 체언 뒤에서 문장 안의 관계나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중세에는 현대와 다른 형태 선택이 있었다.

조사를 고르는 순서 — 기능 → 앞말 → 형태



유정: 사람·동물 / 무정: 그 밖의 대상 Ø: 조사가 겉에 나타나지 않음

유정 명사는 사람·동물처럼 살아 있는 대상을, **무정 명사**는 그렇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Ø**는 조사가 겉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뜻한다.

기능	선택 조건	실제 예 또는 설명 예
주격 이	자음 끝	사ᄅᆞᆷ+이→사ᄅᆞ미

기능	선택 조건	실제 예 또는 설명 예
주격 ㅣ	ㅣ·반모음 ㅣ[j] 이외의 모음 끝	부텨+ㅣ→부톄
주격 Ø	ㅣ·반모음 ㅣ[j] 끝	불휘+Ø→불휘
관형격 ㅅ	무정 명사·높이는 유정 명사	나랏 말ᄊᆞ미, 부텻 ᄠᅳᆮ
관형격 ᄋᆡ/의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 모음 조화	ᄂᆞᆷ+ᄋᆡ→ᄂᆞᄆᆡ
호격 하	높이는 대상을 부름	님금하

용비어천가 제2장 — 방점 생략, 학습용 띄어쓰기.

원문	직접 쓴 현대어 풀이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ᄊᆡ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않아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로 가니

비유로 연결하면

송장의 '받는 사람' 칸이 같은 기능이라도 받는 대상에 따라 쓰는 내용이 달라지듯, 조사 기능과 형태 선택을 나누어 본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옛 조사의 구체적인 쓰임 범위까지 현대 조사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 오해	◯ 바른 이해
조사가 보이지 않으면 주어가 아니다.	불휘는 주격 조사가 겉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Ø)로 주어가 된다.
나랏의 ㅅ은 현대 사이시옷이다.	나라와 뒤 명사를 잇는 관형격 조사 ㅅ이다.

확인·적용 변화-051 ~ 055

051 선택형

용비어천가 “불휘 기픈 남긴”의 불휘에서 주격 조사가 겉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① 불휘가 문장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다.

② 불휘가 무정 명사여서 관형격 조사 ㅅ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③ 반모음 ㅣ[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가 Ø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④ 주격 조사 ㅣ가 붙으면서 불휘의 ㅟ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⑤ 불휘가 자음 받침으로 끝나 주격 이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052 서답형

서문 나랏 말ᄊᆞ미에서 나랏의 ㅅ이 무슨 조사인지 쓰고 현대 사이시옷과 다른 점을 쓰시오.

조사 이름

현대 사이시옷과 다른 점

053 선택형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 뒤에서 모음 조화에 따라 쓰인 관형격 조사의 대표 형태는?

① ᄋᆡ/의 ② ㅅ ③ 이 ④ 롤 ⑤ 하

054 서답형

님금하에서 하의 조사 기능과 부르는 대상을 쓰시오.

하의 조사 이름

부르는 대상

055 선택형

주격 조사를 붙인 모양을 사룸·부텨·불휘 순서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사ᄅᆞ미 / 부텨가 / 불휘가
② 사룸 / 부톄 / 불휘이
③ 사ᄅᆞ미 / 부텨이 / 불휘이
④ 사ᄅᆞ미 / 부톄 / 불휘
⑤ 사룸가 / 부톄 / 불휘

D2 나라히와 남기·남고은 잘못 적은 말일까?

문법10-12

한 줄 답

아니다. 일부 체언은 조사와 만날 때 ㅎ이 드러나거나 ㄱ이 나타나는 결합을 보였다.

정의

특수한 체언 결합은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드러나거나 형태가 바뀌어 ㄱ이 나타나는 등 중세 체언의 결합 특징이다.

조사를 만나 드러나는 체언의 결합 특징

나라 ㅎ + 이 ⟶ **나라히**

모음 조사 앞에서 ㅎ이 드러남

나라ㅎ + 도 ⟶ **나라토**

ㅎ + ㄷ → ㅌ

나모 + 은 ⟶ **남ᄀᆞᆫ**

용비어천가의 실제 예: 불휘 기픈 남ᄀᆞᆫ

체언	조사와 합친 모양	드러난 특징	예
나라ㅎ	나라히 / 나라토	ㅎ이 드러나거나 ㅎ+ㄷ이 ㅌ으로 합쳐짐	나라ㅎ+이 / 나라ㅎ+도
내ㅎ	내히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이 드러남	용비어천가 내히 이러
나모	남기 / 남ᄀᆞᆫ	특정 모음 조사 앞에서 ㄱ이 나타남	나모+이 / 나모+은
나모	나모와	와 앞에서는 ㄱ이 나타나지 않음	나모+와

용비어천가의 **남고**은 '나무는', **내히**는 '내가/냇물이'로 풀이한다. 현대어 뜻과 옛 조사 결합을 함께 살핀다.

비유로 연결하면

투명 잉크가 빛을 만나 드러나는 것처럼, 체언의 결합 특징이 조사 앞에서 드러난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소리를 일부러 숨겼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말이 가진 역사적 결합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 오해	○ 바른 이해
나라토의 토는 독립된 옛 조사이다.	체언의 ㅎ과 조사 도의 ㄷ이 합쳐진 결과이다.
나모 뒤에는 언제나 ㄱ을 넣는다.	남기·남고과 나모와처럼 조사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적용 변화-056 ~ 060

056 서답형

나라ㅎ+이→나라히와 나라ㅎ+도→나라토를 비교하시오. ㅎ이 각각 어떻게 드러났는지 쓰시오.

나라히의 ㅎ

나라토의 ㅎ과 ㄷ

057 선택형

나라ㅎ+도→나라토를 바르게 분석한 것은?

① 체언 끝에 독립 조사 토를 붙였다.

② 도 앞에서 ㄹ이 탈락해 토가 되었다.

③ 조사 도의 ㄷ이 이유 없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었다.

④ 조사 도의 ㄷ은 모음 뒤에서 언제나 ㅌ으로 바뀐다.

⑤ 체언의 ㅎ과 조사 도의 ㄷ이 합쳐져 ㅌ이 되었다.

058 서답형

용비어천가 남군과 나모와를 비교하시오. 각각 붙은 조사를 쓰고, 어느 결합에서 ㄱ이 나타나는지 쓰시오.

남군의 조사

나모와의 조사

ㄱ이 나타나는 결합

---

059 선택형

나라ㅎ처럼 체언에 ㅎ을 덧붙여 나누어 적는 표시의 뜻은?

① 모든 조사 뒤에 독립 단어 ㅎ을 덧붙이라는 뜻이다.

② 나라의 현대 표준 표기를 나라ㅎ로 고치라는 뜻이다.

③ ㅎ이 주격 조사 이의 또 다른 표기라는 뜻이다.

④ 조사 앞에서 ㅎ이 드러나는 체언의 결합 특징을 보인다.

⑤ ㅎ은 글자이므로 실제 결합에서는 소리와 관계가 없다.

---

060 서답형

용비어천가 "내히 이러"의 내히를 내ㅎ+이로 나누어 보시오. 이가 무슨 조사인지, ㅎ이 드러난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의 조사 이름

ㅎ이 드러난 까닭

D3 옛 의문형과 높임 표현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문법10-13

한 줄 답

먼저 주어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묻는지, 누구를 높이는지를 정한 뒤 어미를 본다.

정의

의문 표현과 높임 표현은 묻는 내용·주어 인칭·높이는 대상에 따라 어미 등을 선택하는 문법 표현이다.

먼저 확인	형태	실제 예
주어가 2인칭인가? 예	판정·설명에 관계없이 -ㄴ다 등의 특수 의문형	그듸 엇던 사ᄅᆞ민다
2인칭이 아님; 예/아니요로 답함	판정 의문: -가, -녀 등	功德이 하녀 몯하녀
2인칭이 아님; 내용을 설명함	설명 의문: -고, -뇨 등	뉘 能히 證ᄒᆞ뇨

종류	높이는 대상	형태	실제 예
주체 높임	행위·상태의 주체	-시-/-샤-	사ᄅᆞ샤(용비어천가 제3장)
객체 높임	행위의 대상	-숩-, -줍-, -슙- 계열	내 부텻긔 이런 마ᄅᆞᆯ 듣ᄌᆞᄫᆞ며
상대 높임	말을 듣는 이	-이- 등	ᄒᆞ누니이다

실제 예의 풀이: **그듸 엇던 사ᄅᆞ민다**=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 **뉘 能히 證ᄒᆞ뇨**=누가 능히 증명하는가? / **功德이 하녀 몯하녀**=공덕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

문법 요소	기능	예
동사의 -ᄂᆞ-	현재를 나타냄	가ᄂᆞ니
-더-	회상	보더니
-옴/-움	명사형	뿌메: 쓰-+-움+에

객체 높임의 대표 결합은 ㄱ·ㅂ·ㅅ·ㆆ 뒤 **-숩-**, ㄷ·ㅈ·ㅊ 뒤 **-줍-**, 모음·ㄴ·ㅁ·ㄹ 등 뒤 **-슙-**이다. 뒤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마지막 ㅂ이 ㅸ인 형태도 나타난다.

비유로 연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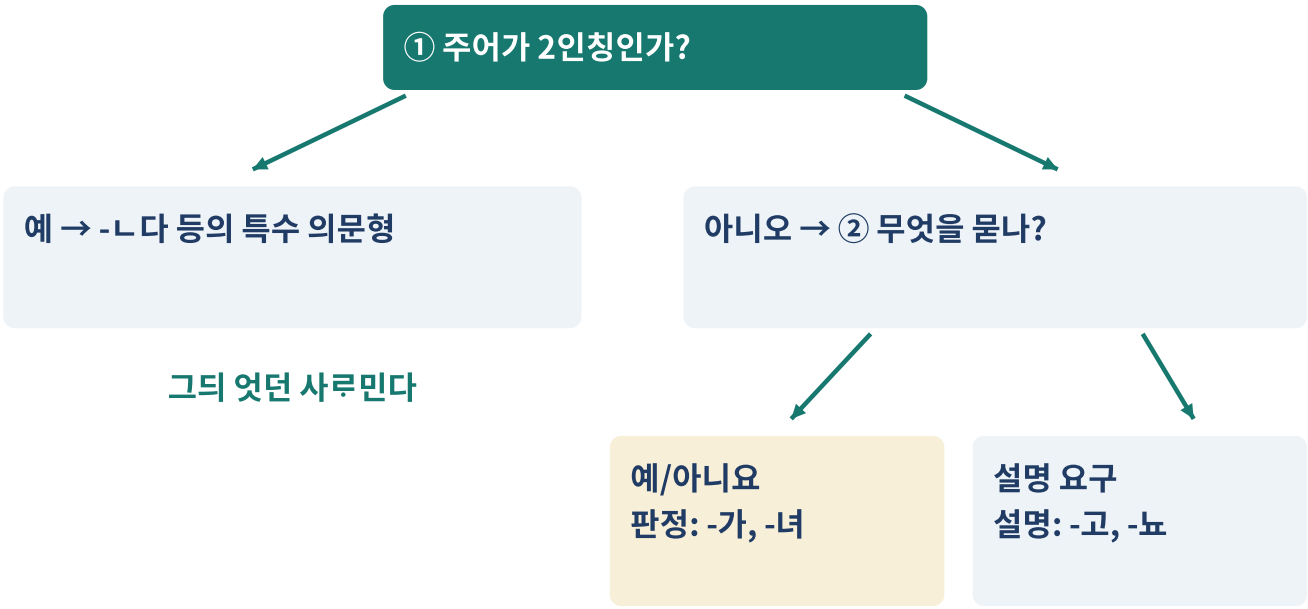
무대에서 행동하는 주인공은 주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객체, 말을 듣는 관객은 상대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실제 문장에서는 한 사람이 객체이면서 듣는 이인 경우도 있다.

× 오해	○ 바른 이해
중세 -ㄴ다는 현대와 같이 언제나 평서형이다.	2인칭 주어의 특수 의문형으로도 썼다.
옛 객체 높임과 현대 -습니다는 높이는 대상이 같다.	옛 형태가 이어져도 현대 -습니다는 듣는 이를 대우한다.

의문형의 두 단계와 높임의 세 대상





확인·적용 변화-061 ~ 065

061 선택형

실제 옛 문장 “뉘 能히 證ᄒᆞ뇨”(누가 능히 증명하는가?)의 의문 종류와 근거가 바른 것은?

① 판정 의문 —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예/아니요로만 답한다.

② 평서문 — 현대의 -다로 끝나지 않는다.

③ 설명 의문 — ‘뉘’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도록 묻는다.

④ 명령문 — 상대에게 증명하라는 행동을 요구한다.

⑤ 청유문 — 함께 증명하자고 제안한다.

062 서답형

〈높임 기능 설명〉 (가) 행동하는 선생님을 높임 (나) 주인공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부처를 높임 (다) 말을 듣는 이를 높임. 각각 주체·객체·상대 높임을 쓰시오.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063 선택형

옛 문장 “그듸 엇던 사ᄅᆞ민다”에서 그듸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문장의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① 현대의 -ㄴ다처럼 사실을 진술한 평서문이다.

② 상대에게 사람이 되라고 시키는 명령문이다.

③ 청자와 함께 사람이 되자는 청유문이다.

④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의문문이다.

⑤ 그듸가 주어이므로 문장 안에는 물음이 없다.

064 서답형

동사의 -ᄂᆞ-, -더-, -옴/-움의 대표 기능을 쓰시오. 서문 뿌메가 속하는 것도 고르시오.

-ᄂᆞ-의 기능

-더-의 기능

-옴/-움의 기능

뿌메에 쓰인 기능

065 선택형

객체 높임 요소를 고른다. 어간이 ㄷ으로 끝나고 뒤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고르는 형태는?

① -옴 ② -숩- ③ -(으)시- ④ -ᄉᆞᆸ- ⑤ -ᄌᆞᆸ-

E1 소리가 바뀐 것과 적는 방식이 바뀐 것을 어떻게 가를까?

문법10-14

한 줄 답

같은 소리를 다르게 적었으면 표기 변화, 발음·음운 체계가 달라졌으면 소리의 변화이다.

정의

음운 변화는 소리 체계·발음의 변화이고 표기 변화는 소리를 적는 글자나 적는 방식의 변화이다.

아래아(·)의 두 단계 소실과 근대의 모음·자음 변화

ᄀᆞᄅᆞ치다 ⟶ ᄀᆞ르치다 ⟶ 가르치다

16세기: 둘째 음절 이하 아래아(·)→ㅡ

18세기: 첫째 음절 아래아(·)→ㅏ

위 세 형태는 대표 변화 경향을 한 낱말로 보이는 과정 설명 예

텬디 ⟶ 천지 구개음화

믈 ⟶ 물 원순 모음화

변화	시기·내용	예
• 의 1단계 소실	16세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합류	ᄀᆞᄅᆞ치다→ᄀᆞ르치다(과정 설명 예)
• 의 2단계 소실	18세기,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합류	ᄀᆞ르치다→가르치다(과정 설명 예)
단모음화	이중 모음 ㅐ·ㅔ가 단모음이 됨	ㅏ+ㅣ[j]→현대 단모음 ㅐ
구개음화	ㄷ·ㅌ 등이 ㅣ 앞에서 ㅈ·ㅊ으로 바뀜	텬디→천지
원순 모음화	입술소리 뒤 ㅡ가 ㅜ로 바뀜	믈→물, 플→풀
표기 방식	이어 적기 중심에서 거듭·끊어 적기 확대	마리 / 말리 / 말이(같은 발음의 설명 예)

변화	시기·내용	예
재음소화	거센소리 한 개를 두 글자로 풀어 적음	깁히: ㅍ을 ㅂ과 ㅎ으로 나누어 적은 예

옛 글자의 운명 — 소리와 글자꼴을 따로 추적

글자	15세기	소리는?	글자·시기	예
ㆍ	아래아 단모음	다른 모음에 합류 ✕	16·18세기 소리 변화 1933 자모에서 제외	가르치다
ㅿ	[z] 추정	별개 소리 소실 ✕	15세기 후반~16세기 소실 진행	ᄆᆞᅀᆞᆷ→마음
ㆁ	[ŋ]	소리 남음 ○	16세기 혼용 근대 ㅇ으로 합류	강의 받침 ㅇ
ㆆ	한자음· 특수 표기	독립 음운으로 단순 대응 안 함	15세기 제한적 사용 그 뒤 쇠퇴	ᄒᆞᆱ 배
ㅸ	[β] 추정	대체로 w로 변화 ㅣ 앞 탈락도 있음	15세기 중엽 이후 일반 표기에서 쇠퇴	더워 / 수이

○ 같은 소리 남음 ✕ 현대 표준어에서 별개 소리로 남지 않음

글자	15세기 소리·사용	소리의 변화	글자의 변화·시기	예
ㆍ	단모음	중앙어에서 16·18세기 두 단계로 합류	소리 소실 뒤에도 사용; 1933년 통일안에서 제외	ᄀᆞᄅᆞ치다→가르치다
ㅿ	[z]로 추정	15세기 후반~16세기에 소실 진행	16세기 후반 표기도 크게 줄어듦	ᄆᆞᅀᆞᆷ→마음

글자	15세기 소리·사용	소리의 변화	글자의 변화·시기	예
ㆁ	[ŋ]	현대 받침 ㅇ에 남음	16세기 혼용, 근대에는 ㅇ으로 합류	강의 받침 ㅇ
ㆆ	한자음·특수 표기에 주로 사용	고유어의 독립 음운과 일대일 대응하지 않음	15세기에도 제한적으로 사용한 뒤 쇠퇴	홇 배, 한자음 표기
ㅱ	[β]로 추정	대체로 반모음 ㅗ/ㅜ[w]로, ㅣ 앞에서는 탈락한 예도 있음	15세기 중엽 이후 일반 표기에서 쇠퇴	더ㅱ→더워 / 수ㅱ→수이

받침 표기는 8종성법 → 근대 7종성 표기 → 현대 형태 밝혀 적기로 이어졌다. 아래아의 두 단계는 중앙어의 대표 경향이며 지역·낱말에 따른 차이가 있다.

비유로 연결하면

회사 간판(글자)과 직원(소리)을 따로 기록하면, 간판만 바뀌었는지 직원도 달라졌는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글자와 소리의 변화가 언제나 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둘이 함께 바뀌기도 한다.

× 오해	◯ 바른 이해
• 소리가 없어지자 그해 글자도 즉시 없어졌다.	소리가 합류한 뒤에도 글자는 쓰였고 1933년 통일안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글자 ㅐ이면 옛날과 지금 발음 구조도 같다.	옛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바뀔 수 있다.

확인·적용 변화-066 ~ 070

066 서답형

〈대표 변화 과정의 설명 예〉 ᄀᆞᄅᆞ치다→ᄀᆞ르치다→가르치다. 각 단계에서 바뀐 모음의 위치·변화·대표 시기를 쓰시오.

1단계: 위치·변화·시기

2단계: 위치·변화·시기

067 선택형

믈→물의 음운 변화는?

① ㅁ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② ㅁ과 ㄹ이 합쳐지는 자음 축약

③ ㄹ이 모음 앞으로 옮겨 적히는 이어 적기

④ 입술소리 ㅁ 뒤의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

⑤ ㅣ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

068 서답형

옛 ㅐ가 ㅏ+반모음 ㅣ[j]인 이중 모음이었다가 현대 단모음이 되었다. 소리·표기 중 무엇의 변화인지와 변화 이름을 쓰시오.

소리·표기 중 관점

변화 이름

---

069 선택형

텬디→천지에서 두 ㄷ·ㅌ 계열 자음이 달라진 일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① 현대 규칙의 형태소 경계가 없으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다.

② 단어 뜻이 달라져 어휘 의미 확대가 일어났다.

③ 근대의 구개음화는 한 단어 안에서도 일어났다.

④ 두 자음이 모두 탈락해 모음만 남았다.

⑤ 모음 ㅣ가 자음 ㅈ으로 바뀌었다.

---

070 서답형

근대 자료의 깁히는 깊이를 적은 예이다. ㅍ에 대응하는 ㅂㅎ만 보시오. 적은 자음 글자는 몇 개이며, 이 둘로 나타내려 한 거센소리는 몇 개인가? 그 거센소리도 쓰시오.

ㅂㅎ의 글자 수

나타내려 한 소리 수·자음

E2 옛 형태가 지금 남아 있으면 기능도 같을까?

문법10-15

한 줄 답

아니다. 형태가 이어져도 기능이 바뀔 수 있으며, 옛 객체 높임 계열은 현대 상대 높임 표현으로 이어졌다.

정의

문법의 변화는 조사·어미 등의 형태나 문법 기능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다.

형태는 이어져도 높이는 대상은 달라진다

옛 객체 높임

부텻긔 … 듣ᄌᆞᄫᆞ며

행위의 대상인 부처를 높임

현대 상대 높임

말씀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 상대를 대우

형태의 역사적 연결

기능은 객체 높임 → 상대 높임으로 변화

변화	옛 예→현대 예	바뀐 점
주격 조사 가	15세기 불휘+Ø→현대 뿌리+가	16세기 후반 자료에 가가 보이고 17세기 이후 사용 확대
높임의 기능	부텻긔 … 듣ᄌᆞᄫᆞ며→ 말씀을 듣습니다	옛 객체 높임 계열에서 현대 상대 높임으로 기능 변화
명사형 쓰임	-옴/-움: 쓰-+-움→쓺 / 현대 -(으)ㅁ: 쓰-+-ㅁ→씀	옛 -옴/-움은 현대 -(으)ㅁ으로 이어짐. 근대 이후 -기의 쓰임도 넓어짐
과거 표현	중세: 부정법··더-(회상)··거- 등 / 근대: -었-	중세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없이 동사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함(부정법). 근대에는 -어 잇-이 줄어든 -었-이 과거 시제 어미로 자리 잡음

비유로 연결하면

물려받은 교복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같은 옷도 입는 사람이 달라지듯, 이어진 형태도 문법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옛 기능과 현대 기능 사이에 역사적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 오해	◯ 바른 이해
가가 없던 때에는 주어도 없었다.	이·ㅣ·Ø 같은 주격 형태로 주어를 나타냈다.
-움이 붙으면 모두 새 파생 명사이다.	서문 뿌메는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든 예이다.

확인·적용 변화-071 ~ 075

071 선택형

"저는 말씀을 듣습니다."의 -습니다가 높이는 대상은?

① 주어인 저 자신
② 말씀의 내용인 사건 자체
③ 문장에 나오지 않은 모든 행위 대상
④ 이 말을 듣는 상대
⑤ 문장 뒤에 올 명사

072 서답형

15세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보이지 않지만 주어는 있었다. 당시 주격 형태를 세 가지 쓰고 현대 뿌리가와 옛 불휘의 차이를 쓰시오.

당시 주격 형태 세 가지

뿌리가와 불휘의 조사 차이

073 선택형

서문의 뿌메를 쁘-+-움+에로 나눌 때 -움의 기능은?

① 새 어근을 만드는 접두사

② 앞말과 뒤 명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③ 말을 듣는 사람을 대우하는 상대 높임 어미

④ 동작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어미

⑤ 용언을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명사형 어미

---

074 서답형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난 대표 시기와 이후 사용 확대 시기를 각각 쓰시오.

일부 자료에 나타난 대표 시기 _____

사용이 확대되는 시기 _____

---

075 선택형

옛 “부텻긔 … 듣ᄌᆞᄫᆞ며”와 현대 “말씀을 듣습니다”의 높임을 비교한 것은?

① 둘 다 문장 주어만을 높인다.

② 옛 표현은 관객을, 현대 표현은 부처만을 높인다.

③ 역사적으로 관련된 형태는 문법 기능이 바뀔 수 없다.

④ 옛 표현은 듣는 행위의 대상인 부처를, 현대 표현의 -습니다는 듣는 상대를 대우한다.

⑤ 옛 -ᄌᆞᄫᆞ-는 뜻을 바꾸는 접두사이다.

E3 옛말의 뜻은 현대어 뜻만 넣으면 될까?

문법10-16

한 줄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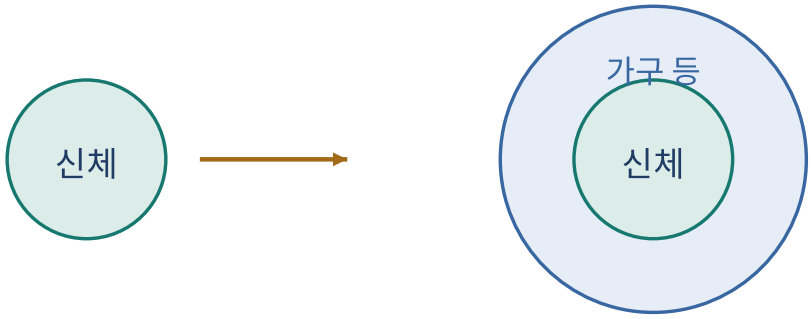
아니다. 옛뜻과 현대 뜻의 범위를 비교하여 확대·축소·이동을 구별해야 한다.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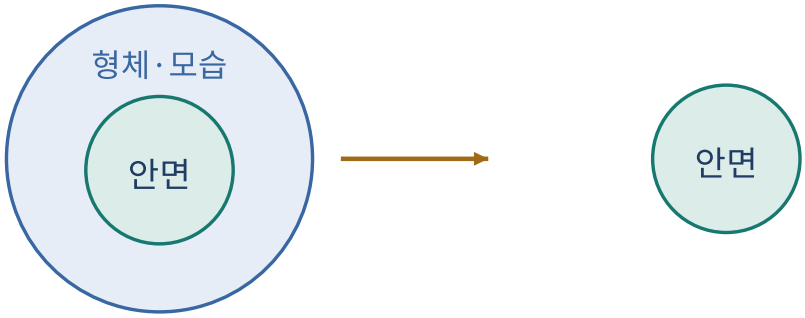
의미 변화는 단어가 가리키는 뜻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다른 뜻으로 옮겨 가는 일이다.

원의 포함 관계로 보는 의미의 확대·축소·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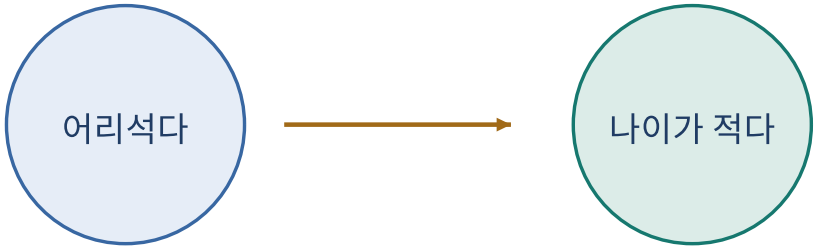
확대: 다리



축소: 얼굴



이동: 어리다



원의 크기·위치는 의미 관계를 보여 주는 설명용 그림

종류	옛뜻→현대 뜻	원문의 연결 예
확대	신체의 다리→신체·가구 등의 다리	다리의 적용 대상이 늘어남
축소	얼굴: 형체·모습(몸 전체의 생김새)→안면	가리키는 범위가 좁아짐

종류	옛뜻→현대 뜻	원문의 연결 예
이동	어리다: 어리석다→나이가 적다	서문 어린 百姓
이동	어엿브다: 가엾다→예쁘다	서문 어엿비 너겨; 형태도 변화

비유로 연결하면

원의 안팎으로 포함 관계를 보이면 확대·축소를, 원의 중심이 옆으로 옮겨 가는 모습으로 이동을 기억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여기까지

실제 단어 뜻의 경계는 원처럼 정확하게 잘리지 않으며 의미 이동에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 오해	◯ 바른 이해
옛 어린 百姓은 어린이만 뜻한다.	이 문맥에서는 어리석은 백성을 뜻한다.
어엿비는 예쁘게라는 뜻으로 옮긴다.	이 문맥에서는 가엾게이며, 현대 예쁘다와 의미 이동을 비교한다.

확인·적용 변화-076 ~ 080

076 서답형

옛 얼굴이 '형체·모습(몸 전체의 생김새)'을, 오늘날에는 주로 '안면'을 가리킨다. 변화 종류와 뜻 범위의 방향을 쓰시오.

변화 종류

범위의 방향

077 선택형

옛 다리가 신체 부분을 가리키다가 가구를 받치는 부분까지 가리키게 된 변화는?

① 의미 축소 ② 구개음화 ③ 의미 확대 ④ 의미 이동만 ⑤ 이어 적기

078 서답형

서문의 어린과 어엿비를 각각 옛뜻·현대에 연결되는 뜻·변화 종류로 정리하시오. 어엿비는 기본형 어엿브다가 현대 예쁘다로 이어진 관계를 비교하시오.

어린: 옛뜻·현대 뜻·종류

어엿비: 옛뜻·현대 연결 뜻·종류

079 선택형

(가) 어리다: 어리석다→나이가 적다 (나) 믈→물. 변화 관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① (가) 어휘 의미, (나) 소리
② (가) 표기, (나) 주격 조사
③ (가) 소리, (나) 어휘 의미
④ (가) 주격 조사, (나) 표기만
⑤ (가) 띄어쓰기, (나) 높임

080 서답형

(가) ㆁ의 글자꼴이 ㅇ에 합쳐졌으나 [ŋ]이 남음 (나) 서문의 '어린'을 현대어 '나이가 적은'으로 잘못 읽는 경우. 각각 글자·소리·어휘 의미 중 직접 비교하는 대상을 쓰시오.

(가)에서 달라진 대상·남은 대상

(나)에서 비교하는 대상

종합 원문 분석 지도

서문 원문 분석 지도 — 한 원문에 여러 개념 연결

원문	분석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나랏 → 관형격 ㅅ 말ᄊᆞ미 → 이어 적기
文字와로 서르 ᄉᆞᄆᆞᆺ디 아니ᄒᆞᆯᄊᆡ	우리말과 중국말의 차이 → 자주
이런 젼ᄎᆞ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홇 배 이셔도	어린 → 어리석은(의미 이동) 百姓이 → 주격 이
ᄆᆞᄎᆞᆷ내 제 ᄠᅳ들 시러 펴디 몯ᄒᆞᇙ 노미 하니라	ᄠᅳ들 → 어두 자음군·이어 적기
내 이ᄅᆞᆯ 爲ᄒᆞ야 어엿비 너겨	이ᄅᆞᆯ → 목적격·모음 조화 어엿비 → 가엾게(의미 이동)
새로 스믈여듧 字ᄅᆞᆯ 밍ᄀᆞ노니	스믈여듧 字 → 창제 28자
사ᄅᆞᆷ마다 ᄒᆡ예 수ᄫᅵ 니겨	수ᄫᅵ → ㅸ의 실제 표기
날로 ᄲᅮ메 便安킈 ᄒᆞ고져 홇 ᄯᆞᄅᆞ미니라	ᄲᅮ메 → 어두 자음군 ᄡᅳ-+-움+에 → 명사형 -움

방점·협주·한자음 표기 생략 / 띄어쓰기는 학습용 조정

빠른 정답

A1	
001	②
002	우리말이라는 언어와 한글이라는 문자. 우리말이 먼저 있었고, 한글은 그 말을 적는 새 문자로 만들어졌다.
003	②
004	(가) 소리 (나) 표기 (다) 문법 (라) 어휘.
005	①

A2	
006	음차 / 소리. 물이라는 뜻을 버리고 수 소리를 빌렸다.
007	②
008	(가) 빌리는 원리 (나) 적는 방식. 한자의 값을 빌리는 원리와 이를 활용하는 기록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009	④
010	첫 石: 훈차·뜻 / 둘째 石: 음차·소리.

B1	
011	①
012	1443년: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 / 1446년: 목적·원리 등을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 반포.
013	③
014	어린: 어리석은 / 어엿비: 가엾게.
015	①

B2	
016	ㄴ: 상형 / ㄴ→ㄷ→ㅌ: 가획.
017	⑤
018	소리가 세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했다. ㄴ에서 ㄷ을 만든 것도 가획이지만 ㄷ은 현대의 거센소리가 아니다.
019	①
020	① ㄱ ② ㄴ ③ ㅁ ④ ㅅ ⑤ ㅇ.

B3	
021	②
022	ㅗ: ㅡ 위 / ㅓ: ㅣ 왼쪽.
023	⑤
024	ㆆ, ㅇ, ㅿ, ㆍ. 28자에서 이 네 글자를 제외하여 현대 기본 자모는 24자이다.
025	③

B4	
026	ㄲ: 각자 병서 / ㅸ: 연서.
027	⑤
028	가의 첫소리 자리와 각의 끝소리 자리에서 ㄱ을 사용한다. 종성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쓴다.
029	④
030	각자: 같은 글자를 가로로, ㄲ / 합용: 다른 글자를 가로로, ㅺ / 연서: 순음 아래 ㅇ, ㅸ.

C1	
031	②
032	ㅺ은 ㅂ과 ㅅ을 함께 적은 어두 자음군이다. 좁쌀의 ㅂ은 쌀의 옛 첫머리 ㅂ이 남은 흔적으로 본다.
033	⑤
034	(가) ㆁ (나) ·, ㅿ.
035	①

C2	
036	양성: ·, ㅏ, ㅗ / 음성: ㅡ, ㅓ, ㅜ / 중성: ㅣ.
037	②
038	쇼를 / 부텨를 / 양성·음성 모음의 차이.
039	③
040	ㅗ/ㅜ. 졸졸은 양성, 줄줄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모음 조화의 흔적을 보인다.

C3	
041	③
042	없음: 평성·낮음 / 한 점: 거성·높음 / 두 점: 상성·낮다가 높아짐.
043	②
044	방점: 높낮이·글자 왼쪽 / ː: 긴소리·발음 표기에서 해당 음절 뒤.
045	②

C4	
046	ㄹ / 이어 적기: 표기 / 연음: 소리.
047	①
048	(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썼다. (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049	⑤
050	중국 한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인위적으로 고쳐 정한 이상적인 한자음이므로 당시 실제 우리 한자음과 달랐다.

D1	
051	③
052	관형격 조사 ㅅ. 나라와 뒤 명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현대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과 기능·규칙이 다르다.
053	①
054	호격 조사 / 임금.
055	④

D2	
056	나라히: ㅎ이 뒤 음절 첫소리로 드러남 / 나라토: ㅎ과 ㄷ이 합쳐져 ㅌ이 됨.
057	⑤
058	남군: 운 / 나모와: 와 / 나모+운에서 ㄱ이 나타난다.
059	④
060	주격 조사. '내ㅎ'이 ㅎ 종성 체언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때 ㅎ이 드러났다.

D3	
061	③
062	(가) 주체 높임 (나) 객체 높임 (다) 상대 높임.
063	④
064	현재 / 회상 / 명사형 / 명사형.
065	⑤

E1	
066	1단계: 둘째 음절 이하의 ㆍ→ㅡ, 16세기 / 2단계: 첫째 음절의 ㆍ→ㅏ, 18세기.
067	④
068	소리(음운)의 변화 — 단모음화.
069	③
070	글자 2개 / 소리 1개, ㅍ.

E2	
071	④
072	이·ㅣ·Ø. 현대 뿌리가에는 가가 드러나고, 옛 불휘는 주격 조사가 Ø로 나타난다.
073	⑤
074	16세기 후반 / 17세기 이후.
075	④

E3	
076	의미 축소 / 넓은 형체·모습에서 안면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077	③
078	어린: 어리석은→나이가 적은, 의미 이동 / 어엿비: 가엾게→예쁘게, 의미 이동 (기본형도 어엿브다→예쁘다로 변화).
079	①
080	(가) 글자꼴은 바뀌고 소리는 남음 / (나) 어휘 의미.

상세 해설

A1. 옛말은 모두 같은 시대의 말일까?

001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창제 당시 글자 원리의 설명만으로 한글 이전 시대의 우리말 기록을 대신할 수 없다.
②	**정답**	**한글 이전에도 한자를 빌린 우리말 기록이 있었다.**
③	오답	현대 발음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시대별 소리 차이를 놓친다.
④	오답	한자 표기라는 이유로 우리말 흔적까지 지울 수 없다.
⑤	오답	현대 문장을 바꾸어 쓴 것은 당시 우리말의 기록이 아니다.

핵심 근거 한글 이전에도 한자를 빌린 우리말 기록이 있었다.

002 해설

정답 예시 우리말이라는 언어와 한글이라는 문자. 우리말이 먼저 있었고, 한글은 그 말을 적는 새 문자로 만들어졌다.

인정 기준 언어·문자를 구별하고 우리말이 먼저 있었음을 쓰면 인정한다.

003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고대·중세를 가르는 대표 경계이다.
②	**정답**	**이 책은 임진왜란 전후를 중세·근대의 대표 경계로 삼는다.**
③	오답	전기·후기 중세를 나누어 살피는 기준이다.
④	오답	15세기 중세 국어 시기의 사건이다.
⑤	오답	근대·현대의 이행을 살피는 경계이다.

핵심 근거 이 책은 임진왜란 전후를 중세·근대의 대표 경계로 삼는다.

004 해설

정답 예시 (가) 소리 (나) 표기 (다) 문법 (라) 어휘.

인정 기준 네 관점을 각각 정확히 연결한다.

005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ㅐ의 소릿값이나 -ㄴ다의 기능처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②	오답	같은 형태라도 시대에 따라 소리·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오답	같은 한글 글자도 시대에 따라 소릿값이 다를 수 있다.
④	오답	같은 시대에도 문헌·지역별 차이가 있다.
⑤	오답	옛 조사는 당시 체계로 분석해야 한다.

핵심 근거 ㅐ의 소릿값이나 -ㄴ다의 기능처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A2. 한자의 뜻과 소리를 어떻게 빌렸을까?

006 해설

정답 예시 음차 / 소리. 물이라는 뜻을 버리고 수 소리를 빌렸다.

인정 기준 음차와 소리를 모두 쓰면 인정한다.

007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주로 사람·땅 이름을 적는 것으로 구결의 기능과 다르다.
②	**정답**	**구결은 한문을 읽는 데 필요한 토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③	오답	우리말 어순에 가깝게 한자를 배열한 방식이다.
④	오답	우리말 어순과 조사·어미를 나타내는 실무적 기록 방식이다.
⑤	오답	우리말 문장 전체를 한자로 적는 방식이다.

핵심 근거 구결은 한문을 읽는 데 필요한 토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008 해설

정답 예시 (가) 빌리는 원리 (나) 적는 방식. 한자의 값을 빌리는 원리와 이를 활용하는 기록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인정 기준 두 빈칸과 분류 단계 차이를 모두 적는다. 구결에는 읽기를 돕는 방식이라는 풀이도 인정한다.

009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향찰에는 뜻과 소리의 활용이 함께 나타난다.
②	오답	우리말 문장을 적는 것이므로 한문 어순에만 따르지 않는다.
③	오답	이는 구결의 중심 특징이다.
④	**정답**	**향찰은 우리말 문장 전체를 차자 표기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⑤	오답	고유 명사 표기에만 한정된 방식이 아니다.

핵심 근거 향찰은 우리말 문장 전체를 차자 표기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010 해설

정답 예시 첫 石: 훈차·뜻 / 둘째 石: 음차·소리.

인정 기준 두 글자의 원리와 빌린 값을 모두 정확히 구분한다.

B1. 훈민정음은 무엇을 바꾸려고 만들었을까?

011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근거이다.**
②	오답	백성을 가엾게 여긴 대목에 직접 연결된다.
③	오답	새로운 글자를 마련한 대목에 직접 연결된다.
④	오답	쉽게 익혀 편하게 쓰려는 대목에 직접 연결된다.
⑤	오답	기존 표기를 그대로 지키는 뜻이 아니라 우리말에 맞는 새 문자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핵심 근거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는 근거이다.

012 해설

정답 예시 1443년: 새 문자 훈민정음 창제 / 1446년: 목적·원리 등을 밝힌 훈민정음 해례본 반포.

인정 기준 두 연도와 서로 다른 사건을 정확히 연결한다.

013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쉽게 익힌다는 내용과 반대이다.
②	오답	새 문자를 만든 것이며 우리말까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③	**정답**	**수빙 니겨와 날로 뿌메는 쉽고 편한 실제 사용에 초점이 있다.**
④	오답	어린의 옛뜻을 현대의 나이 뜻으로 잘못 읽었다.
⑤	오답	창제 목적을 실제 보급 결과로 바꾸어 읽었다.

핵심 근거 수빙 니겨와 날로 뿌메는 쉽고 편한 실제 사용에 초점이 있다.

014 해설

정답 예시 어린: 어리석은 / 어엿비: 가엾게.

인정 기준 어린을 어리석은, 어엿비를 가엾게·불쌍히 등으로 풀면 인정한다. 어린아이·예쁘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

015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언해본은 해례의 모든 설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서문·예의 등을 옮긴 것이다.**
②	오답	두 자료의 언어와 관계를 뒤바꾸었다.
③	오답	창제 취지와 원리·사용 설명이 있다.
④	오답	어제 서문·예의 등을 옮긴 것으로 해례 전체 번역이 아니다.
⑤	오답	대표 현전 자료는 15세기 월인석보 권두본이다.

핵심 근거 언해본은 해례의 모든 설명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의 서문·예의 등을 옮긴 것이다.

B2. 자음 글자는 획만 더하면 모두 설명될까?

016 해설

정답 예시 ㄴ: 상형 / ㄴ→ㄷ→ㅌ: 가획.

인정 기준 두 원리 이름을 정확히 쓴다.

---

017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이는 중성자 11자의 구성이다.
②	오답	이체자 3자를 모두 가획자로 묶은 오류이다.
③	오답	현대 자음자 수와 옛 중성 기본자 수를 섞었다.
④	오답	창제 당시 초성의 구성 범주가 아니다.
⑤	**정답**	**기본자·가획자·이체자를 더하면 17자이다.**

핵심 근거 기본자·가획자·이체자를 더하면 17자이다.

---

018 해설

정답 예시 소리가 세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했다. ㄴ에서 ㄷ을 만든 것도 가획이지만 ㄷ은 현대의 거센소리가 아니다.

인정 기준 소리의 세기와 가획의 관련, ㄷ이 거센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 포함한다.

---

019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세 글자는 기본자·가획자와 구별하는 이체자이다.**
②	오답	초성 기본자는 ㄱ·ㄴ·ㅁ·ㅅ·ㅇ이다.
③	오답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가획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④	오답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글자가 아니다.
⑤	오답	자음 글자이므로 중성 재출자에 속하지 않는다.

핵심 근거 세 글자는 기본자·가획자와 구별하는 이체자이다.

---

020 해설

정답 예시 ① ㄱ ② ㄴ ③ ㅁ ④ ㅅ ⑤ ㅇ.

인정 기준 다섯 번호와 기본자를 각각 대응한다. 번호 표시는 본문의 발음 기관 단면도와 같아야 한다.

B3. 모음 글자는 왜 하늘·땅·사람에서 시작할까?

021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상형 대상을 바꾸었다.
②	**정답**	**세 기본자는 천·지·인을 본뜬 글자이다.**
③	오답	ㅁ·ㄴ의 상형과 중성 상형을 섞었다.
④	오답	세 상형 대상의 연결이 모두 다르다.
⑤	오답	초성 발음 기관과 중성 상형을 혼동했다.

핵심 근거 세 기본자는 천·지·인을 본뜬 글자이다.

022 해설

정답 예시 ㅗ: ㅡ 위 / ㅓ: ㅣ 왼쪽.

인정 기준 기준 글자와 방향을 모두 쓴다.

023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글자 조립과 음절 수를 혼동했다.
②	오답	중성은 자음 둘의 조립으로 만들지 않았다.
③	오답	이는 기본자 3자의 상형 설명이다.
④	오답	이는 합용 병서의 설명이다.
⑤	**정답**	**재출은 기본자 합성 뒤 점을 한 차례 더한 제자 관계를 말한다.**

핵심 근거 재출은 기본자 합성 뒤 점을 한 차례 더한 제자 관계를 말한다.

024 해설

정답 예시 ㆆ, ㅇ, ㅿ, ㆍ. 28자에서 이 네 글자를 제외하여 현대 기본 자모는 24자이다.

인정 기준 네 글자를 모두 쓰고 28−4=24의 관계를 설명한다. ㅱ을 네 글자에 넣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025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아래·왼쪽의 ㅜ·ㅓ와 혼동했다.
②	오답	ㅗ·ㅏ는 ㅣ 자체와 같은 중성 모음이 아니다.
③	**정답**	**기본자의 위·오른쪽에 점을 놓은 초출자들은 양성 계열이다.**
④	오답	모음 합성과 자음 연서를 혼동했다.
⑤	오답	모음 합성과 자음 병서를 혼동했다.

핵심 근거 기본자의 위·오른쪽에 점을 놓은 초출자들은 양성 계열이다.

B4. 글자를 만드는 일과 쓰는 일은 같을까?

026 해설

정답 예시 ㄲ: 각자 병서 / ㅸ: 연서.

인정 기준 두 방법을 정확히 연결한다.

027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같은 ㄱ을 나란히 쓴 각자 병서이다.
②	오답	같은 ㅅ을 나란히 쓴 각자 병서이다.
③	오답	ㅂ 아래 ㅇ을 이어 쓴 연서이다.
④	오답	초성·중성을 모아 쓴 음절이다.
⑤	**정답**	**서로 다른 ㅂ·ㄷ을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다.**

핵심 근거 서로 다른 ㅂ·ㄷ을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다.

028 해설

정답 예시 가의 첫소리 자리와 각의 끝소리 자리에서 ㄱ을 사용한다. 종성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쓴다.

인정 기준 초성·종성 두 자리와 초성 글자의 재사용을 포함한다.

---

029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가획의 예이다.
②	오답	연서의 예이다.
③	오답	각자 병서의 예이다.
④	**정답**	**중성을 초성 아래에 놓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예이다.**
⑤	오답	합용 병서의 예이다.

핵심 근거 중성을 초성 아래에 놓고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예이다.

---

030 해설

정답 예시 각자: 같은 글자를 가로로, ㄲ / 합용: 다른 글자를 가로로, ㅺ / 연서: 순음 아래 ㅇ, ㅱ.

인정 기준 세 배치와 해당 예가 모두 맞아야 한다. 다른 올바른 병서 예도 인정한다.

C1. 옛 글자가 안 보이면 그 소리도 없어진 걸까?

031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현대 받침 ㅇ에 [ŋ] 소리가 남아 있다.
②	**정답**	**글자의 합류와 소리의 소실은 다른 일이다.**
③	오답	현대 초성 ㅇ은 소리가 없는 자리 표시이다.
④	오답	ㆁ은 자음 글자이다.
⑤	오답	특정 글자꼴의 변화가 모든 받침의 소실을 뜻하지 않는다.

핵심 근거 글자의 합류와 소리의 소실은 다른 일이다.

032 해설

정답 예시 ㅺ은 ㅂ과 ㅅ을 함께 적은 어두 자음군이다. 좁쌀의 ㅂ은 쌀의 옛 첫머리 ㅂ이 남은 흔적으로 본다.

인정 기준 ㅂ계 자음군과 좁쌀의 ㅂ을 연결한다. 현대에 자음이 임의로 생겼다고만 쓰면 부족하다.

033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이중 모음도 한 음절의 모음 부분이다.
②	오답	모음과 자음을 혼동했다.
③	오답	옛 ㅐ는 ㅏ와 반모음의 결합이다.
④	오답	모음 합성과 자음 연서를 혼동했다.
⑤	**정답**	**같은 글자꼴이 시대에 따라 다른 발음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핵심 근거 같은 글자꼴이 시대에 따라 다른 발음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034 해설

정답 예시 (가) ㆁ (나) ㆍ, ㅿ.

인정 기준 ㆁ의 [ŋ] 보존과 ㆍ, ㅿ의 독립된 소리 소실·합류를 구별한다.

035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ㅸ의 대표 변화와 ㅣ 앞의 탈락을 구별해야 한다.**
②	오답	더워·수이의 해당 자리에 ㅂ이 남지 않았다.
③	오답	ㆁ의 글자 합류와 혼동했다.
④	오답	실제 변화 방향과 맞지 않는다.
⑤	오답	수이에서는 ㅸ이 탈락한 형태를 살핀다.

핵심 근거 ㅸ의 대표 변화와 ㅣ 앞의 탈락을 구별해야 한다.

C2. 조사 모양이 앞말의 모음에 따라 달라질까?

036 해설

정답 예시 양성: ㆍ, ㅏ, ㅗ / 음성: ㅡ, ㅓ, ㅜ / 중성: ㅣ.

인정 기준 각 모음을 올바른 부류에 넣는다.

037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모음 조화의 방향을 뒤바꾸었다.
②	**정답**	**둘 다 자음 끝이지만 모음 부류가 달라 목적격 형태도 다르다.**
③	오답	모음 끝 뒤 형태를 자음 끝에 붙였다.
④	오답	끝소리 조건과 모음 부류를 모두 잘못 적용했다.
⑤	오답	둘째 말 벋의 음성 모음을 반영하지 않았다.

핵심 근거 둘 다 자음 끝이지만 모음 부류가 달라 목적격 형태도 다르다.

038 해설

정답 예시 쇼ᄅᆞᆯ / 부텨를 / 양성·음성 모음의 차이.

인정 기준 두 형태와 모음 부류의 차이를 모두 쓴다.

039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앞은 표기이고 뒤는 발음 예여서 모음 조화의 짝이 아니다.
②	오답	비음화의 표기·발음 비교이다.
③	**정답**	**어간 모음에 따라 -아/-어를 고른 예이다.**
④	오답	받침과 연음의 비교이며 모음 조화가 아니다.
⑤	오답	ㅎ과 ㄷ의 축약을 보여 주는 비교이다.

핵심 근거 어간 모음에 따라 -아/-어를 고른 예이다.

040 해설

정답 예시 ㅗ/ㅜ. 졸졸은 양성, 줄줄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모음 조화의 흔적을 보인다.

인정 기준 ㅗ·ㅜ와 각각 양성·음성의 연결을 쓴다.

C3. 글자 옆의 점은 글자 수나 길이를 셀까?

041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점이 없는 평성이다.
②	오답	한 점을 쓰는 거성이다.
③	**정답**	**두 점은 상성을 표시한다.**
④	오답	점 수는 음절 수가 아니다.
⑤	오답	방점의 직접 뜻은 높낮이이다.

핵심 근거 두 점은 상성을 표시한다.

042 해설

정답 예시 없음: 평성·낮음 / 한 점: 거성·높음 / 두 점: 상성·낮다가 높아짐.

인정 기준 세 이름과 높낮이를 각각 맞춘다.

043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모양의 유사성만으로 기능을 같게 볼 수 없다.
②	**정답**	**방점은 왼쪽의 높낮이, ː는 발음 표기의 길이를 나타낸다.**
③	오답	방점 수와 자음 수는 관련이 없다.
④	오답	기호 기능과 낱말 뜻 변화는 별개이다.
⑤	오답	높낮이·길이·목소리 크기를 혼동했다.

핵심 근거 방점은 왼쪽의 높낮이, ː는 발음 표기의 길이를 나타낸다.

---

044 해설

정답 예시 방점: 높낮이·글자 왼쪽 / ː: 긴소리·발음 표기에서 해당 음절 뒤.

인정 기준 높낮이와 길이, 두 위치를 구별한다.

---

045 해설

정답 ②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상성은 높낮이이고 현대 ː는 길이여서 기능이 다르다.
②	**정답**	**방점의 쇠퇴와 상성·현대 긴소리의 역사적 연결을 함께 본다.**
③	오답	중앙어에서는 옛 성조 구별이 소실되었다.
④	오답	긴소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반대이다.
⑤	오답	15세기에는 방점을 썼고 16세기 후반부터 쇠퇴했다.

핵심 근거 방점의 쇠퇴와 상성·현대 긴소리의 역사적 연결을 함께 본다.

C4. 소리가 이어지는 것과 이어 적는 것은 같을까?

046 해설

정답 예시 ㄹ / 이어 적기: 표기 / 연음: 소리.

인정 기준 ㄹ과 표기·소리를 각각 정확히 연결한다.

---

047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8종성법은 이 여덟 받침 글자의 사용을 설명한다.**
②	오답	현대의 일곱 대표 받침 소리와 혼동했다.
③	오답	근대 7종성 표기와 혼동했다.
④	오답	ㅅ 대신 ㅈ을 넣었다. 곶은 예외 표기로 구별한다.
⑤	오답	8종성법의 ㅅ·ㆁ을 다른 글자로 바꾸었다.

핵심 근거 8종성법은 이 여덟 받침 글자의 사용을 설명한다.

---

048 해설

정답 예시 (가)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썼다. (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인정 기준 재사용 원리와 여덟 글자 범위를 각각 쓴다.

---

049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나라+관형격 ㅅ으로, 이 문항이 제시한 받침+주격 이의 연철과 다르다.
②	오답	앞말 받침에 주격 이가 붙은 예가 아니다.
③	오답	주격 이 앞의 받침을 뒤로 적은 예가 아니다.
④	오답	날+로의 ㄹ은 받침으로도 남으며 조사 이의 연철 예가 아니다.
⑤	**정답**	**말씀+이가 말ᄊᆞ미로 적혀 ㅁ을 뒤 음절 첫소리에 적었다.**

핵심 근거 말씀+이가 말ᄊᆞ미로 적혀 ㅁ을 뒤 음절 첫소리에 적었다.

---

050 해설

정답 예시 중국 한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인위적으로 고쳐 정한 이상적인 한자음이므로 당시 실제 우리 한자음과 달랐다.

인정 기준 인위적으로 정한 이상적 한자음과 실제 한자음의 차이를 연결한다.

D1. 옛 조사도 현대의 이/가·을/를로 고르면 될까?

051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불휘는 기픈의 주어 역할을 한다.
②	오답	유정·무정에 따른 관형격 조건을 주격 분석에 잘못 적용했다.
③	**정답**	**불휘는 주격 기능을 하되 조사가 겉에 드러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한다.**
④	오답	불휘 자체가 반모음 ㅣ[j]로 끝나며 여기에서는 주격 조사가 Ø이다.
⑤	오답	끝소리 조건을 잘못 설명했다.

핵심 근거 불휘는 주격 기능을 하되 조사가 겉에 드러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한다.

052 해설

정답 예시 관형격 조사 ㅅ. 나라와 뒤 명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며 현대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과 기능·규칙이 다르다.

인정 기준 관형격과 단어 사이 문법 관계를 쓰면 인정한다. 소리 현상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하다.

053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높이지 않는 사람·동물 명사 뒤 관형격 조사이다.**
②	오답	무정 명사·높이는 유정 명사 뒤의 대표 관형격이다.
③	오답	자음 끝 체언 뒤의 대표 주격이다.
④	오답	모음 끝·양성 조건의 대표 목적격이다.
⑤	오답	높이는 대상을 부르는 호격이다.

핵심 근거 높이지 않는 사람·동물 명사 뒤 관형격 조사이다.

054 해설

정답 예시 호격 조사 / 임금.

인정 기준 호격·높임 대상을 부르는 조사라는 풀이와 임금을 연결한다.

---

055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뒤의 두 형태에 현대 가를 적용했다.
②	오답	앞의 자음 끝에 이가 빠졌고 뒤의 Ø 조건을 무시했다.
③	오답	모음 끝에서의 결합과 Ø 조건을 반영하지 않았다.
④	**정답**	**자음 끝은 이, 다른 모음 끝은 ㅣ, ㅣ·반모음 끝은 Ø가 대표 형태이다.**
⑤	오답	앞말 자음 끝의 옛 주격 이를 현대 가로 바꾸었다.

핵심 근거 자음 끝은 이, 다른 모음 끝은 ㅣ, ㅣ·반모음 끝은 Ø가 대표 형태이다.

D2. 나라히와 남기·남고은 잘못 적은 말일까?

056 해설

정답 예시 나라히: ㅎ이 뒤 음절 첫소리로 드러남 / 나라토: ㅎ과 ㄷ이 합쳐져 ㅌ이 됨.

인정 기준 ㅎ의 드러남과 ㅎ+ㄷ→ㅌ을 구별한다.

---

057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표면의 토를 독립 조사로 잘못 나누었다.
②	오답	관련되는 자음은 ㄹ이 아니라 ㅎ·ㄷ이다.
③	오답	결과는 ㅌ이며 ㅎ과의 결합 조건이 있다.
④	오답	이 결합에서는 체언의 ㅎ이 조건이며 모든 모음 끝 체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⑤	**정답**	**조사 도와 체언의 역사적 ㅎ이 결합한 결과이다.**

핵심 근거 조사 도와 체언의 역사적 ㅎ이 결합한 결과이다.

---

058 해설

정답 예시 남근: 온 / 나모와: 와 / 나모+온에서 ㄱ이 나타난다.

인정 기준 두 조사와 ㄱ 출현 조건을 정확히 연결한다.

---

059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ㅎ은 체언의 결합 특징을 보이는 표시이다.
②	오답	역사적 체언의 분석과 현대 맞춤법은 다르다.
③	오답	ㅎ과 조사는 서로 다른 요소이다.
④	**정답**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 보는 설명용 표시이다.**
⑤	오답	나라히·나라토에서 드러나는 소리와 관계가 있다.

핵심 근거 체언과 조사를 나누어 보는 설명용 표시이다.

---

060 해설

정답 예시 주격 조사. '내ㅎ'이 ㅎ 종성 체언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때 ㅎ이 드러났다.

인정 기준 주격과 ㅎ 종성 체언의 결합을 모두 포함한다.

D3. 옛 의문형과 높임 표현은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

061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묻는 내용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오답	종결 모양이 현대와 다르다고 평서문인 것은 아니다.
③	**정답**	**의문사 뉘와 -뇨가 설명 의문을 이룬다.**
④	오답	명령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
⑤	오답	함께 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핵심 근거 의문사 뉘와 -뇨가 설명 의문을 이룬다.

---

062 해설

정답 예시 (가) 주체 높임 (나) 객체 높임 (다) 상대 높임.

인정 기준 세 대상을 정확히 연결한다.

---

063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현대 어미 기능을 옛 문장에 그대로 적용했다.
②	오답	어떤 사람인지 묻는 뜻이며 명령이 아니다.
③	오답	함께 할 행동을 제안하지 않는다.
④	**정답**	**2인칭 주어의 특수 의문형 -ㄴ다가 쓰였다.**
⑤	오답	2인칭 주어도 의문문을 이룬다.

핵심 근거 2인칭 주어의 특수 의문형 -ㄴ다가 쓰였다.

---

064 해설

정답 예시 현재 / 회상 / 명사형 / 명사형.

인정 기준 세 기능과 뿌메의 명사형 기능을 정확히 쓴다.

---

065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명사형 어미이므로 객체 높임 형태가 아니다.
②	오답	주로 모음·ㄴ·ㅁ·ㄹ 등 뒤에서 고르는 계열이다.
③	오답	주체 높임의 대표 요소이다.
④	오답	주로 ㄱ·ㅂ·ㅅ·ㅎ 뒤에서 고르는 계열이다.
⑤	**정답**	**ㄷ·ㅈ·ㅊ 뒤의 객체 높임 대표 계열이며 뒤가 자음이므로 ㅂ인 형태를 고른다.**

핵심 근거 ㄷ·ㅈ·ㅊ 뒤의 객체 높임 대표 계열이며 뒤가 자음이므로 ㅂ인 형태를 고른다.

E1. 소리가 바뀐 것과 적는 방식이 바뀐 것을 어떻게 가를까?

066 해설

정답 예시 1단계: 둘째 음절 이하의 ㆍ→ㅡ, 16세기 / 2단계: 첫째 음절의 ㆍ→ㅏ, 18세기.

인정 기준 두 위치와 변화 방향, 대표 세기를 모두 쓴다.

---

067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자음 ㅁ은 변하지 않았다.
②	오답	두 자음이 모두 남아 있다.
③	오답	모음 자체가 ㅡ에서 ㅜ로 바뀐 예이다.
④	**정답**	**입술소리 뒤에서 모음의 입술 모양이 둥글어지는 변화이다.**
⑤	오답	ㄷ이나 ㅣ가 없는 자료이다.

핵심 근거 입술소리 뒤에서 모음의 입술 모양이 둥글어지는 변화이다.

---

068 해설

정답 예시 소리(음운)의 변화 — 단모음화.

인정 기준 ‘소리(음운)의 변화’와 ‘단모음화’를 모두 쓰면 인정한다.

---

069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역사적 변화의 적용 범위를 현대와 같게 묶었다.
②	오답	제시된 것은 소리의 변화이다.
③	**정답**	**현대의 대표 형태소 경계 조건과 달리 역사적 변화는 단어 내부에도 적용되었다.**
④	오답	ㅊ·ㅈ으로 바뀌어 남았다.
⑤	오답	변화한 것은 ㄷ·ㅌ 계열 자음이다.

핵심 근거 현대의 대표 형태소 경계 조건과 달리 역사적 변화는 단어 내부에도 적용되었다.

070 해설

정답 예시 글자 2개 / 소리 1개, ㅍ.

인정 기준 글자와 소리의 단위를 구별하여 2·1·ㅍ을 모두 쓴다.

E2. 옛 형태가 지금 남아 있으면 기능도 같을까?

071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자기 자신인 주체를 높이는 형태가 아니다.
②	오답	사건을 높이는 기능이 아니다.
③	오답	옛 객체 높임 기능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한 해석이다.
④	**정답**	**현대 -습니다는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이다.**
⑤	오답	관형격 조사나 관형사형의 기능이 아니다.

핵심 근거 현대 -습니다는 상대 높임의 종결 표현이다.

072 해설

정답 예시 이·ㅣ·Ø. 현대 뿌리가에는 가가 드러나고, 옛 불휘는 주격 조사가 Ø로 나타난다.

인정 기준 세 형태와 현대 가·옛 Ø의 대응을 쓴다.

073 해설

정답 ⑤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어간 뒤의 어미이며 접두사가 아니다.
②	오답	-움은 조사 에보다 앞의 명사형 어미이다.
③	오답	명사형 기능이지 상대 높임이 아니다.
④	오답	객체 높임 형태와 다르다.
⑤	**정답**	**여기에서는 쓰는 행위를 명사형으로 만든 뒤 조사 에가 붙었다.**

핵심 근거 여기에서는 쓰는 행위를 명사형으로 만든 뒤 조사 에가 붙었다.

074 해설

정답 예시 16세기 후반 / 17세기 이후.

인정 기준 두 시기를 구별한다. 대표 문헌의 등장 시기와 모든 화자의 즉각적 사용을 같게 쓰지 않는다.

075 해설

정답 ④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주체 높임으로 잘못 묶었다.
②	오답	두 높임 대상을 뒤바꾸었다.
③	오답	형태가 이어져도 기능은 변할 수 있다.
④	**정답**	**옛 객체 높임과 현대 상대 높임의 기능 차이를 구별한다.**
⑤	오답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계열이다.

핵심 근거 옛 객체 높임과 현대 상대 높임의 기능 차이를 구별한다.

E3. 옛말의 뜻은 현대어 뜻만 넣으면 될까?

076 해설

정답 예시 의미 축소 / 넓은 형체·모습에서 안면으로 범위가 좁아졌다.

인정 기준 축소와 범위 감소를 연결한다.

077 해설

정답 ③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오답	뜻의 적용 대상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②	오답	자음 발음의 변화가 아니다.
③	**정답**	**기존 뜻을 포함한 채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④	오답	기존 신체 뜻을 버리지 않고 다른 대상까지 넓어졌다.
⑤	오답	받침을 적는 위치와 관계없는 뜻 변화이다.

핵심 근거 기존 뜻을 포함한 채 적용 대상이 늘어났다.

078 해설

정답 예시 어린: 어리석은→나이가 적은, 의미 이동 / 어엿비: 가엾게→예쁘게, 의미 이동(기본형도 어엿브다→예쁘다로 변화).

인정 기준 두 옛뜻과 현대의 대응 뜻, 의미 이동을 모두 쓴다. 어엿비를 현대에 그대로 쓰는 표준 부사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079 해설

정답 ①

선택지	판단	근거
①	**정답**	**앞은 뜻의 이동, 뒤는 ㅡ→ㅜ 원순 모음화이다.**
②	오답	두 변화의 대상과 맞지 않는다.
③	오답	관점을 뒤바꾸었다.
④	오답	조사 변화가 아니며 믈→물은 모음 변화이다.
⑤	오답	두 자료 모두 해당 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

핵심 근거 앞은 뜻의 이동, 뒤는 ㅡ→ㅜ 원순 모음화이다.

080 해설

정답 예시 (가) 글자꼴은 바뀌고 소리는 남음 / (나) 어휘 의미.

인정 기준 글자·소리·뜻의 관점을 각각 나누어 쓴다.

원문과 사실 확인 출처

원문: 『훈민정음』 언해본(『월인석보』 권두본, 1459), 『용비어천가』 제2장. 방점·협주·한자음 표기 일부를 생략하고 학습용으로 띄어 썼다. 현대어 풀이·문항·그림은 직접 제작했다.

사실 확인: 국립한글박물관 상설 전시 해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새국어생활』 관련 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훈민정음 28자모」·「중세국어」·「근대국어」·「모음조화」·「여린히읗」·「반치음」·「순음」·「ㆍ」;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